



대전시 성평등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II - 인지지표의 활용과 측정

주혜진

연구진

연구책임 • 주혜진 /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요약 및 정책제안

□ 연구 배경 및 목적

- 성 격차에 집중하는 지표는 남성의 삶을 준거집단으로 둔다는 한계와 삶의 변화를 체감하는 여성의 견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객관적 통계를 통한 여성 삶의 변화 측정과 더불어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 혹은 행복에 대한 측정이 필요한 시점임.
- 대전지역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 혹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성평등 지표를 보완하고자 함.

□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행복 측정 방법

- 측정 지표는 기존의 <지역 성평등 지수> 지표 체계에 근거해 계량적 지표에 상응하는 주관적 체감 지표를 발굴함.
- 2016년 4~5월, 대전지역 거주, 5개 구 및 연령 할당 표본에 의거한 성인 남녀 2,000여명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함.

□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 삶에 대한 만족감·행복 정도를 성별로 단순 비교하면 통계적으로 의미 없음.
-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행복은 기초자치구에 따른 동서 격차, 소득과 고용 안정성에 따른 차이가 있음.
- 고용 안정성과 일에 대한 만족감, 승진 가능성은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지역사회 봉사활동, 관심 및 타인과의 교류는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여성 1인 가구는 남성과 달리 1인 가구라는 점이 주관적 삶의 질·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건강유지 활동 및 여가활동은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여성의 가사 및 돌봄 시간이 남성보다 크게 긴 반면, 일하는 남성에게 가사노동시간은 행복감에 부정적으로 작용함.

□ 정책적 함의 및 성평등 지표 보완

- 주요 위원회의 여성 비율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도 등은 객관적 지표로 추가되어야 함.
- 일자리 안정성, 우울감 및 안전정책 체감도 및 만족도는 주관적 지표로 추가될 필요가 있음.
- 가사와 돌봄 노동을 분리해 시간을 측정하고 여가생활 비용과 정보 접근 체감도에 대한 측정이 요구됨.

- 목 차 -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2장 이론적 검토	9
제1절 지역 성평등 지수	9
제2절 삶의 질과 행복 측정 지표	11
제3장 연구 방법	17
제1절 연구절차 및 연구모형	17
제2절 자료수집방법	18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20
제4장 조사결과분석	25
제1절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5
제2절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분석	30
1. 성별 차이	30
2. 기초자치구별 차이	33
3. 연령대별 차이	38
4. 월평균 가구 소득별 차이-전체	42
5. 경제활동상태별 차이-전체	46
제3절 연구모형의 검증	50
1. 탐색적 요인 분석	50
2. 상관관계 분석	60
3. 다중회귀 분석	67

제5장 성평등 지표 개발에 주는 함의	81
제1절 조사결과의 정책 시사점	81
제2절 지역 성평등 지표 보완 과제	83
참 고 문 헌	88
부 록	93
1. 설문지	93
2. 부록표	98

- 표 목 차 -

<표 2-1> 2015 지역 성평등 지수 영역 및 세부 지표 내용	9
<표 3-1> 성별, 연령별, 자치구별 할당변인 생성	19
<표 3-2> 측정 도구	21
<표 4-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전체/남/여)	26
<표 4-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경제활동 여/부)	28
<표 4-3> 성별차이	30
<표 4-4> 기초자치구별 차이(여성)	35
<표 4-5> 연령대별 차이(여성)	39
<표 4-6> 월평균 가구 소득별 차이(여성)	43
<표 4-7> 경제활동 상태별 차이(여성)	47
<표 4-8> 요인분석(전체)	52
<표 4-9> 요인분석(남성)	53
<표 4-10> 요인분석(여성)	54
<표 4-11> 요인분석(경제활동인-전체)	57
<표 4-12> 요인분석(경제활동인-남성)	58
<표 4-13> 요인분석(경제활동인-여성)	59
<표 4-14>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 (Inter-Construct Correlations) (전체)	61
<표 4-15>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 (Inter-Construct Correlations) (남성)	62
<표 4-16>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 (Inter-Construct Correlations) (여성)	63
<표 4-17>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 (Inter-Construct Correlations) (경제활동인-남성) ..	64
<표 4-18>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 (Inter-Construct Correlations) (경제활동인-여성) ..	65
<표 4-19> 다중회귀분석(전체)	69
<표 4-20> 다중회귀분석(남성)	71
<표 4-21> 다중회귀분석(여성)	72

<표 4-22> 다중회귀분석(경제활동인-남성)	75
<표 4-23> 다중회귀분석(경제활동인-여성)	76
<표 5-1> 조사결과의 정책 시사점	81
<표 5-2>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지표에 대한 보완	83
<표 5-3> 인권·복지 영역 지표에 대한 보완	85
<표 5-4>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 지표에 대한 보완	86

- 그림 목 차 -

[그림 3-1] 연구절차	17
[그림 3-2] 연구모형	18

제 1 장

연구배경 및 목적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지역 성평등 지수’는 일정한 지표체계를 활용하여 16개 시·도별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측정 결과에 따라 취약한 지표를 정책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매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해 오고 있다. ‘성평등’이라는 개념이 몇 가지 단어와 문장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합의하기도 어려운 만큼, 지역 성평등 지수 지표 체계에 대한 시·도 여성정책담당 공무원들의 혼돈과 불만도 적지 않다.

여성가족부는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체계를 영역과 분야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누고 세부 지표의 측정 결과에 근거해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발표한다. 8개 분야 21개 지표로 구성된 지역 성평등 지수의 지표 체계(주재선·김원홍·김난주·손현민, 2015)는 경제활동참가율을 비롯해 관리직 비율, 건강검진수검률 등 객관적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표를 통해 나타나는 ‘성별 격차’에 주목한다.

여성가족부의 ‘지역 성평등 지수’는 ‘얼마나 지역사회가 성평등한가’를 보여주는 방식을 지역사회 여성과 남성의 수준 차이가 어떤 영역(분야)에서 어떻게 실증적으로 나타나는가에 주목한다. 사실 ‘성평등 수준’ 측정에 있어 많이 활용되는 다른 지수 혹은 지표들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삶을 비교해 그 격차를 실증적으로 비교하거나(유엔개발기구(UNDP)의 ‘성불평등 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와 ‘성개발지수(Gender Development Index: GDI)’,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이 발표하는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 등), 정해진 영역에서 여성의 성취정도를 남성과 비교하는 경우(유럽연합(European Union) 산하 자율 기구인 유럽 성평등 연구소(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EIGE)의 ‘성평등 지수(Gender Equality Index: GEI)’ 등)가 일반적이다(주혜진, 2015).

지역 여성정책연구기관도 대부분 매년 혹은 격년으로 성평등 현황을 짐작할 수

있는 현황을 각종 통계 지표를 활용해 발표한다. 경제활동에서 국민연금가입 현황 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이 처한 현실과 위치를 남성과 비교해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성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통계 지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격차에 집중하는 지표는 여러 삶의 영역에서 남성을 기준으로 여성의 현실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성별 격차를 확인하는 것이 여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완전한 평등의 수준은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 현실에 위치하는 것’ 혹은 ‘특정 성(남성)의 삶이 지향해야 할 기준’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주혜진, 2015). 이는 성평등을 기회와 자원의 분배에 있어 남성과 여성이 똑같아야 한다는 균등(equity)의 관점만을 강조할 우려를 내포한다.

둘째, 성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통계 자료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점이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통계가 여성이 처한 현실 혹은 그 지역의 성평등 현황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 있어왔다. 국가뿐 아니라 지역연구기관이 제시하는 통계자료들은 ‘수집 가능한’ 통계 자료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실제 여성들이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객관적 지표들의 변화가 여성 개인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체감하는지)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여러 계량적 통계 자료로 제시되는 여성의 ‘생활수준’ 혹은 ‘현황 지표’가 한 도시의 성평등함을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성평등 수준의 측정이 여성의 삶의 질 측정과 그 맥락을 같이해왔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러한 통계 수치들이 “기회와 자원의 분배 그리고 사회적 지원에의 접근에 있어 ‘성에 근거한 차별’이 없는 상태(Laura de Bonfils et al., 2013)”에 있는 여성의 삶을 온전히 조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여성의 현실을 보여주는 객관적 통계 자료와 더불어 여성 개인이 인지하는 삶의 모습, 만족감 혹은 행복도 성평등함을 측정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여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성평등 수준의 측정 과정이라면,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전시 성평등 지표 개발의 보완이자 또 다른 방법으로서, 대전시에 거주하는 여성의 삶에 대한 만족감 혹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한 결과에 근거해 성평등 지표를 보완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 혹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특수성을 찾기 위해 남성과 비교, 성별 차이점을 발견하려 했다. 여성이 행복하다는 생각에 미치는 다양한 다른 생각과 판단 그리고 사회적 제약 요인들이 남성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 혹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영향 요인 간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셋째,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 혹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제약들을 살펴보고, 이 제약 요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될 때 행복감이 더 커질 수 있는지 예측하고자 한다.

넷째, 이 연구는 대전시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 혹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예측 요인을 파악하여, 이에 근거한 성평등 지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여성의 행복 혹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과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측정도구, 즉 성평등 지수 측정을 위한 지표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 2 장

이론적 검토

제1절 지역 성평등 지수

제2절 삶의 질과 행복 측정 지표

제2장 이론적 검토

제1절 지역 성평등 지수

지역사회 여성의 삶이 어떠한가, 혹은 여성과 남성의 삶 비교를 통한 성평등 현황 파악을 위해 매년 여성가족부는 ‘지역 성평등 지수’를 발표해 오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제3항에 근거해 여성과 남성의 현 수준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제시되는 지역 성평등 지수의 지표체계는 8개 분야와 21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주재선 외, 2015).

〈표 2-1〉 2015 지역 성평등 지수 영역 및 세부 지표 내용

정책 영역	분야	지표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 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의사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 및 기초의원 성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직 비율
	교육·직업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균 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공적연금 가입자의 비율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홍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성평등 의식·문화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사노동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정책 영역	분 야	지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자
	문화 및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시간 • 여가시간 만족도 • 인터넷 이용률

자료: 주재선 외(2015) 『2015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중 발췌.

<표 2-1>에 제시된 지역 성평등 지수는 개별 지표에 따른 성별 격차에 주목하고, 성평등 달성을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없는 상태로 가정한다. 각 지표별로 성별 격차가 없을 때 평등한 것으로 판단한다.

위 지표는 첫째, 수집 가능한 계량적 자료만을 가지고 여성과 남성의 성취를 비교했다는 면에서, ‘성평등’이 포괄해야 할 보다 다양한 삶의 영역을 탐색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성평등의 수준 측정에 있어 특정 성(남성)의 성취가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여성이 위 제시된 여러 영역에서 남성과 똑같은 성취를 달성했을 때 성평등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평등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만큼이나 논쟁적이다. ‘동질성에 기반 한 성평등’ 개념과 ‘특수성에 기반한 성평등’ 개념은 여성주의의 오랜 화두였다. 위 지표는 계량적으로 측정할 가능한 한에서 동질성에 기반 한 성평등을 염두하고, 각 영역별 현황 분석에 근거한 성평등 지수를 산출한 특성이 있다.

셋째, 위 지표와 성평등 지수는 여성의 의견 혹은 현재 자신이 처한 삶에 대한 판단을 반영할 여지가 전혀 없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과 동일해졌다고 해서 지역사회 여성들이 사회가 성평등해졌다고 판단하거나 여성의 삶이 좋아졌다고 생각할지는 알 수 없다. 국가나 도시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GDP나 GNP 등 경제적 지수를 주로 활용하던 것에서 주관적 삶의 질, 행복이나 삶에 대한 만족감을 측정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 변화도 무관하지 않다. 달리 말해, 삶에 대한 여성의 체감 정도를 반영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삶의 질과 행복 측정 지표

1. 삶의 질 지표

사회정책에서 ‘주관적 웰빙’이나 ‘삶에 대한 만족’ 혹은 ‘주관적 삶의 질’ 등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한 준, 2015). 추상적이고 개념 정의가 난해한 행복을 대체해 최근 사회정책 분야에서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는 용어가 ‘삶의 질’이다. 삶의 질은 흔히 GDP나 소득처럼 물질적 부와는 다른 차원에서 인간의 삶을 설명하는 용어로 활발하게 사용돼왔다.

하지만 삶의 질을 측정하거나 탐색하는 데 논리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삶의 질을 “개인의 욕구가 충족된 상태”로 보는가, 아니면 개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기회와 여건이 충분한 상태’로 개념화하는가에 따라 측정도구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삶의 질을 주체인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인가, 아니면 관찰자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외적 조건을 평가하는 것”인가에 따라 서로 측정 지표 발굴과 해석은 달라진다(한 준·김석호·하상응·신인철, 2014: 4-5).

삶의 질을 여건이나 자원, 조건을 중심으로 개념화하고 객관적인 지표들을 활용해 측정하는 경향은 정책연구 분야에서 꾸준히 수행돼 왔다(김진욱, 2000; 최 열·이성호·김지현, 2001; 이경태·권영주, 2010). 앞서 언급한 성평등 지표들은 여성의 삶의 질을 객관적 자원이나 여건을 위주로 해 측정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객관적, 외부 요인에 의한 삶의 질 측정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고자 200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정책연구에서도 삶의 질을 통합적으로 측정해야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박성복, 2003), 객관적 삶의 환경과 주관적 판단 요소를 혼합해 정책 개선 함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많이 사용됐다. 지역사회, 시민의 삶의 질 연구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들은 객관적인 요인들 외에도 다양한 주관적 판단 요소들이 추가됐다(정선기, 2007; 조성호·신원득·김홍식·허재완·윤태웅, 2009).

2. 행복지표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삶의 질로서 ‘행복’ 개념은 2000년대 이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연구주제다. 공공정책의 목표가 사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감 제고에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행복은 중요한 정책 목표로 가시화되었다(변미리·최정원·박민진·이혁준, 2015). 행복 측정에 대한 연구들은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 혹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굴하고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수행돼왔다. 행복이란 개념이 일시적이긴 하지만 현재 자신의 삶 전체를 평가하는 단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많은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는 연구들도 이 개념을 활용해 시민의 삶을 측정해 왔다.

일정 소득에 도달하면 행복감에는 변화가 없다는 ‘이스털린의 역설’을 반증하는 연구(류지아, 2016)는 소득 등 경제적 요인에 의해 행복감 혹은 주관적 삶의 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주목했지만, 소득 변수가 행복에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많은 연구들에서 혼재되어 나타난다. 소득과 행복간의 관계에 등장할 수 있는 다른 변수들, 예를 들어 ‘삶의 역량(교육이나 자유로운 선택 역량 등)’이 소득과 행복 사이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구교준·임재영·최슬기, 2014).

성별과 연령도 행복감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변수로 고려되지만, 여성이 더 행복한지 남성이 더 행복한지는 연구 결과마다 차이가 있고(김승권·장영식·조홍식·차명숙, 2008; 강성진, 2010), 연령의 경우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와 U-curve 형태로 일정 연령대에 행복감이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연구도 있다(강성진, 2010).

사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에서 특정한 한 두 개의 변인은 설명력이 약하다. 다양한 삶의 영역이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일반적 견해이기 때문에 성별이 중요한 요인으로 활용되어도 다양한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 결정 요인으로 분석된다(김상곤·김성중, 2008; 강성진, 2010; 최말옥, 2011; 이준한, 2013). 어느 영역이나 분야에 초점을 두고 행복 결정 요인을 발굴할 것인가에 따라 행복을 설명하는 변인들의 활용은 달

라진다.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안전과 행복(임현진·이재열·박광민·설동훈, 1997; 이지은·강민성·이승중, 2014), 복지정책 수요와 행복(김미곤·여유진·김성아·김진희·최민정, 2015), 생활 및 노동시간 활용과 행복(주은선, 2016), 주거환경과 행복감과의 관계(임준홍·홍성효, 2014) 등 다양한 변인과 행복과의 관계가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여성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선행연구들도 다양한 변인들을 활용하여 여성의 행복을 설명한다. 연구자들은 여성의 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혼인상태’를 꼽는다. 결혼 자체가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강성진, 2010), 취업이 여성에게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결혼 후에는 일과 가정의 양립 갈등이 유발되면서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이주일·유경, 2010). 일이 여성의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지만, 일하지 않는 전업주부가 더 행복하다는 연구(홍찬숙, 2009)도 있다. 배우자와의 가사분담(유계숙, 2010)이나 가족과의 활동(양지훈, 2012) 등 가족관계 관련한 변인이 여성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직장생활 관련한 변인들도 여성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정은의·노안영, 2007) 등 개인 심리적 요인들도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러 행복 관련 선행연구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장은 행복 혹은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을 결정하는 요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제약과 주관적인 안녕감(well-being)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김명소·김혜원·한영석·임지영, 2003; 김운태, 2010)는 점이다. 기존의 성평등 지수 지표처럼 객관적 현황에 대한 자료, 남성과의 격차만을 고려하는 지표 결과에 근거한 여성의 삶에 대한 해석은 여성의 주관적 감정과 인식, 판단 등을 배제했다는 점에서 큰 결함이 있다. 여성의 일상과 삶에 대한 성찰을 생생하게 기술한 슐트(2015)가 지적한 것처럼 불행감 혹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에 대한 느낌이 실증적 현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성평등 지표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여성정책연구에서도 ‘행복지표’ 후

은 ‘행복지수’ 개념이 개발되어 왔다(김창연·조영미·이혜경·박진경, 2012; 강현아·최지훈, 2013). ‘여성행복지표’는 여러 삶의 영역에 대한 ‘개인 차원의 인식’ 혹은 ‘만족도 수준 측정’을 통해 지역 여성의 삶의 질을 파악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여성정책 혹은 성평등 정책에 대한 개인의 공감(체감)정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지표가 기존의 성평등 지표 혹은 여성의 삶을 객관적으로 나타내왔던 계량적 지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문항에 따른 단순 비교를 넘어 행복을 예측하는 문항들 간 관계와 영향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적 함의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제 3 장

연구 방법

제1절 연구모형

제2절 자료수집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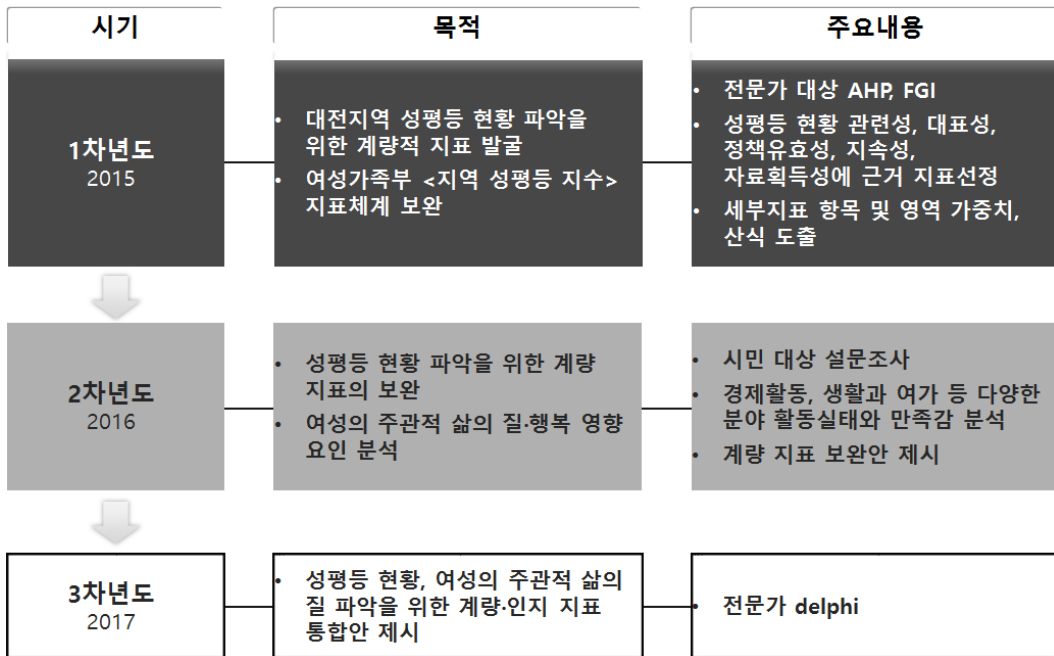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제3장 연구 방법

제1절 연구절차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대전시 성평등 지표 개발을 최종 목적으로 한 연구로,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연구절차는 다음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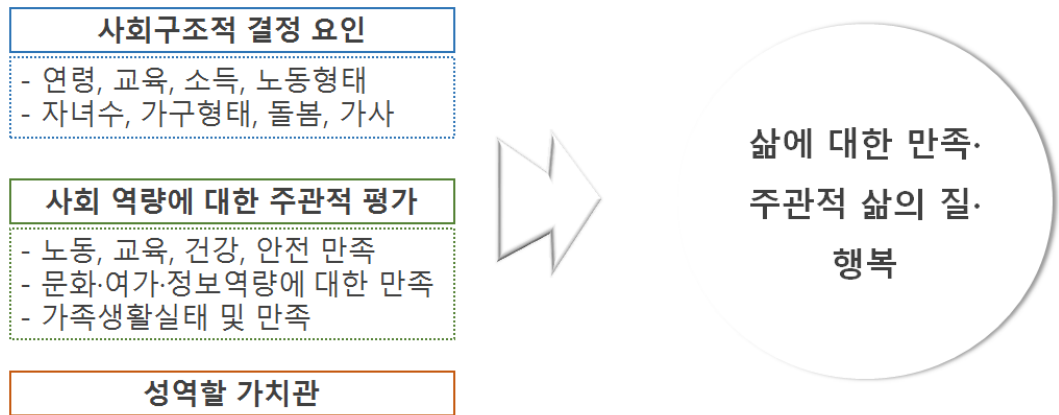
이 연구는 양적방법을 활용해 분석을 진행했고, 주관적 삶의 질 평가 혹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에서 출발해, 남성과 달리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를 고려해 가족관계와 가사 및 돌봄 시간 등 가족생활 현황과 그 평가가 주관적 삶의 질(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 관련한 주관적

만족감이 행복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인지, 소득과 노동형태 등이 주관적 삶의 질과 행복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성역할 가치관(성평등 의식 혹은 성역할 고정관념) 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 3-2]과 같다.

[그림 3-2] 연구모형



제2절 자료수집방법

이 연구는 2016년 4월에서 5월 시행된 대전지역 5개 구에 거주하는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확산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했다. 본 조사의 모집단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69세의 성인 남녀이며,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의 2016년 2월 자료를 근거로 하여, 성별, 연령별, 자치구별 모집단 분포를 파악했다.

표본할당요인은 일반 성인의 성별, 연령별, 자치구별 규모이다. 연령은 만 20세 이상으로 정의하였고, 만 20~29세, 만 30~39세, 만 40~49세, 만 50~59세, 만 60~69세의 5개 연령대를 기준으로 나누어 생성하였다. 자치구는 대전광역시의 5개 자치구

인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를 기준으로 나누어 생성했다.

최종적으로 모집단 분석에 활용한 성별, 연령별, 자치구별 변수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 3-1> 성별, 연령별, 자치구별 할당변인 생성

변수	코드 및 설명	
성별	1=남성	2= 여성
연령	1=20대(만20-29세) 3=40대(만40-49세) 5=60대(만60-69세)	2=30대(만30-39세) 4=50대(만50-59세)
거주지역	1=동구 3=서구 5=대덕구	2=중구 4=유성구

앞서 정의한 할당요인을 기준으로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을 근거로 하여 파악한 성별 모집단 분포는 다음과 같다. 전체 분석대상 모집단 수는 1,080,733명이며, 이중 남성은 50.5%(546,012명), 여성은 49.5%(534,721)이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4.7%(267,403명)로 가장 많으며, 50대 22.1%(238,543명), 30대 21.0%(227,425명), 20대 19.5%(210,829명), 60대 12.6%(136,533) 순이다. 본 조사의 목표 표본수는 2,000명이며, 행정자치부의 2016년 2월 「주민등록인구현황」 결과, 성별, 연령별 모집단 분포에 비례하여 목표표본 구성안을 구성했다. 조사 결과, 2,147부를 회수하고 인구사회학적 문항에 불성실한 응답을 한 148부를 제외한 1,999명을 표본으로 하여 분석했다.

응답이 완료된 설문자료는 오류 검증 과정을 거쳐 SPSS Statistics 1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도구

이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들에 대한 설명은 <표 3-2>로 요약된다. 종속변수는 ‘주관적 삶의 질 혹은 행복’이며 “내 삶은 안정적이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와 “나는 행복하다” 로 구성됐다. 각각의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5점=매우 그렇다’ 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이 최종적으로 지역 성평등 지수 지표 체계의 보완을 위한 주관적 지표 발굴에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는 설문 설계 시 여성가족부의 지역 성평등 지수 지표 영역과 분야를 고려하여 문항을 구성했다.

지역 성평등 지수 영역과 관련한 문항 외 성평등 가치관을 추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추가했다.

〈표 3-2〉 측정 도구

지역 성평등 지수 영역	독립 변수 분야	변수 설명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내 일자리는 안정적이다 나는 내 수입에 만족한다 나는 현재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한다 나는 최근 이직을 고려해본 적이 있다 내가 노력하면 현재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다
	의사결정과 사회참여	나는 직장, 모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내 의견은 잘 반영되고 있다 나는 국가 및 지역,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투표에 참여한다 나는 동네일이나 지역사회(대전시) 일에 관심이 많다 나는 지역의 다양한 모임(종교, 동호회, 자원봉사 등)에 참여한다 나는 외롭거나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와 친척, 이웃 등이 있다 나는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에 자주 참여한다
	교육·직업 훈련	나는 더 배우고 싶다(고등교육기관 진학, 학위취득, 평생교육 등) 나는 원하는 만큼 교육을 받았다(초, 중, 고, 대학교) 내가 원하는 직업훈련(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건이 된다 나는 최근 참여한 교육프로그램(직무관련, 자기개발 등)에 만족한다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나는 사고나 질병 혹은 경제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보건	나는 자주 우울하다 나는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동이나 검진을 받고 있다 나는 건강 유지를 위해 일정 비용을 지출한다 (유기농, 건강식품, 운동 등) 나는 일상생활을 혼자 불편 없이 할 수 있다
	안전	나는 인적이 뜸한 시간(장소)에 돌아다니는 것이 두렵다 나는 범죄의 피해자가 될까봐 불안하다 나 또는 주변사람이 성범죄(희롱, 추행, 폭력 등) 피해를 경험한 적 있다 나는 위험(재해, 범죄 등)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나는 살고 있는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해 불안하다

지역 성평등 지수 영역	독립 변수 분야	변수 설명
성평등 의식·문화	가족	<p>나는 하루에 보통 __시간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등)을 돌본다</p> <p>나는 하루에 보통 __시간 집안일을 한다</p> <p>나는 현재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p> <p>나는 가족들과 대화 및 교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p>
	문화 및 정보	<p>나는 여가 및 문화 향유를 하고 있다(문화행사, 공연, 강좌 등)</p> <p>나는 필요한 공공 정보(복지서비스 정보 등)를 잘 알고 있다</p> <p>나는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p>
성평등 가치관	성역할 고정관념	<p>나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남성을 먼저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p> <p>나는 조직의 책임자나 리더는 남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p> <p>나는 맞벌이라도 가사와 양육의 주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한다</p> <p>나는 현재 남녀 간 지위차이는 능력과 노력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p>

제 4 장

조사결과분석

제1절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제2절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분석

제3절 연구모형의 검증

제4장 조사결과분석

제1절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999명이 응답한 이번 조사는 다음과 같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인다. 여성의 비율이 56.1%로 남성보다 많으며, 연령은 평균 43.06세로 남성은 42.87세, 여성은 43.21세다. 연령대는 40대가 남성 24.3%, 여성 26.2%로 가장 많다. 교육년수는 평균 13.49년이며, 자녀수는 평균 1.43명이다. 가구유형은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가 남성 52.0%, 여성 57.0%로 가장 많다.

경제활동상태는 정규상근 비율이 59.4%로 가장 많으며, 남성은 72.2%, 여성은 49.4%로 남성의 정규상근 비율이 더 높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400~500만원 사이가 25.0%로 가장 비율이 높으며, 남성 여성 모두 400~500만원 사이가 많다.

돌봄시간은 평균 1.14시간으로, 남성은 평균 .65시간인 반면에 여성은 1.52시간으로 여성이 남성이 비해 2배 이상 돌봄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을 1시간 이하로 하는 비율이 여성은 61.9%인 반면, 남성은 83.7%다. 가사시간은 평균 1.67시간이며, 남성은 평균 .76시간인 반면에 여성은 2.37시간으로 여성이 3배 정도 더 많이 가사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를 1시간 이하로 하는 비율이 여성은 28.8%인 반면, 남성은 88.4%다.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서구 31.5%로 가장 많고, 유성구 24.4%, 중구 16.5%, 동구 14.8%, 대덕구 12.9%순이다. 평균거주기간은 12.05년으로 남성은 12.40년, 여성은 11.78년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전체/남/여)

구분	전체						남성				여성			
	N	%	M	S.D	N	%	M	S.D	N	%	M	S.D		
	(단위:명)													
성별	남	877	43.9											
	여	1122	56.1											
연령대 (연령)	20대	369	18.5			166	18.9		203	18.1				
	30대	438	21.9			195	22.2		243	21.7				
	40대	507	25.4	43.06	12.829	213	24.3	42.87	294	26.2	43.21	12.719		
	50대	438	21.9			197	22.5		241	21.5				
	60대	247	12.4			106	12.1		141	12.6				
교육년수				13.49	2.351			13.88	2.245		13.18	2.386		
자녀수				1.43	1.067			1.35	1.108		1.50	1.030		
가구 유형	1인 가구	171	8.6			91	10.4		80	7.1				
	배우자와 동거	289	14.5			131	14.9		158	14.1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	1096	54.8			456	52.0		640	57.0				
	부모와 동거	375	18.8			181	20.6		194	17.3				
	기타 가구	68	3.4			18	2.1		50	4.5				
경제 활동 상태	정규상근	1187	59.4			633	72.2		554	49.4				
	비정규상근	278	13.9			113	12.9		165	14.7				
	부정기파트타임	91	4.6			23	2.6		68	6.1				
	일하지 않음	443	22.2			108	12.3		335	29.9				
	100만원 미만	79	4.0			32	3.6		47	4.2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200만원 미만	259	13.0			84	9.6		175	15.6				
	200~300만원 미만	379	19.0			169	19.3		210	18.7				
	300~400만원 미만	446	22.3			206	23.5		240	21.4				
	400~500만원 미만	500	25.0			224	25.5		276	24.6				

		500만원 이상	336	16.8			162	18.5			174	15.5	
틀봄 (시간/1일)	1시간 이하	1428	71.4	1.14	1.793	734	83.7	.65	1.129	694	61.9	1.52	2.098
	그 이상	571	28.6			143	16.3			428	38.1		
집안일 (시간/1일)	1시간 이하	1098	54.9	1.67	1.477	775	88.4	.76	.850	323	28.8	2.37	1.480
	그 이상	901	45.1			102	11.6			799	71.2		
거주기간				12.05	9.451			12.40	10.361			11.78	8.669
거주 지역	동구	295	14.8			124	14.1			171	15.2		
	중구	329	16.5			156	17.8			173	15.4		
	서구	630	31.5			282	32.2			348	31.0		
	유성구	488	24.4			208	23.7			280	25.0		
대덕구		257	12.9			107	12.2			150	13.4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주관적 삶의 질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지방정부 정책에서도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지원 방안으로 일자리 등 취·창업 정책이 논의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성별과 함께 경제활동 여부를 중요한 삶의 질과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로 생각하고, 집단의 특성과 각 집단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자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4-2>와 같다.

<표 4-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경제활동 여/부)

(단위:명)

구분		경제활동 함				경제활동 안함			
		N	%	M	S.D	N	%	M	S.D
성별	남	769	49.4			108	24.4		
	여	787	50.6			335	75.6		
연령대 (연령)	20대	228	14.7	43.30	11.624	141	31.8	42.22	16.361
	30대	374	24.0			64	14.4		
	40대	453	29.1			54	12.2		
	50대	359	23.1			79	17.8		
	60대	142	9.1			105	23.7		
교육년수				13.78	2.206			12.45	2.544
자녀수				1.46	1.036			1.36	1.169
가구 유형	1인 가구	141	9.1			30	6.8		
	배우자와 동거	190	12.2			99	22.3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	922	59.3			174	39.3		
	부모와 동거	243	15.6			132	29.8		
	기타 가구	60	3.9			8	1.8		
경제 활동 상태	정규상근	1187	76.3						
	비정규상근	278	17.9						
	부정기파트타임	91	5.8						
	일하지 않음					443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7	3.0			32	7.2		
	100만원~200만원 미만	207	13.3			52	11.7		
	200~300만원 미만	275	17.7			104	23.5		
	300~400만원 미만	344	22.1			102	23.0		
	400~500만원 미만	413	26.5			87	19.6		
	500만원 이상	270	17.4			66	14.9		
돌봄 (시간/1일)	1시간 이하	1135	72.9	1.03	1.508	293	66.1	1.50	2.523
	그 이상	421	27.1			150	33.9		
가사 (시간/1일)	1시간 이하	921	59.2	1.52	1.349	177	40.0	2.18	1.766
	그 이상	635	40.8			266	60.0		
거주기간				11.70	9.483			13.29	9.243
거주 지역	동구	229	14.7			66	14.9		
	중구	261	16.8			68	15.3		
	서구	485	31.2			145	32.7		
	유성구	372	23.9			116	26.2		
	대덕구	209	13.4			48	10.8		

경제활동을 하는 응답자 중 여성의 비율은 50.6%이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의 여성 비율은 75.6%이다. 연령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평균 43.30세, 경제활

동을 하지 않는 경우 42.22세다. 연령대는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40대가 29.1%,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0대가 31.8%로 가장 많다.

교육년수는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평균 13.78년이었으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평균 12.45년이다. 자녀수는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평균 1.46명이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평균 1.36명이다. 가구유형은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59.3%,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39.3%로 가장 많았다.

경제활동을 하는 응답자의 76.3%는 정규상근직이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400~500만원 사이가 26.5%로 가장 많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00~300만원 사이가 23.5%로 가장 많다.

돌봄시간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평균 1.03시간이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1.50시간이다. 돌봄을 1시간 이하로 하는 비율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72.9%인 반면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66.1%였다. 가사시간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평균 1.52시간에 비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평균 2.18시간으로 늘어났다. 가사를 1시간 이하로 하는 비율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59.2%이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40.0%다.

제2절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분석

1. 성별 차이

스스로 인지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 평가 혹은 행복(종속변수)을 측정하는 문항들 - “내 삶은 안정적이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성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행했다.

39개 문항 중 여성과 남성 간 응답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p < 0.05$ 수준 이상) 나타난 문항은 23개 문항으로, 특히 ‘성역할 고정관념’ 문항과 ‘생활안전 만족’ 문항, 그리고 ‘돌봄과 가사 시간’ 은 부문 내 세부 모든 문항에서 성별 차이가 높은 유의 수준($p < 0.001$)에서 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생활안전 관련해 더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실제 가족을 돌보고 가사에 투입하는 시간도 더 길었다. 기존의 젠더 관계와 질서를 고착화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이 더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경제활동에 대한 만족감 문항 중 “노력하면 승진할 수 있다” 는 문항에 대해 남성과 여성은 0.1%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였고, “자주 우울하다” 는 문항에 있어서도 매우 높은 유의수준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은 승진에 있어서는 남성보다 덜 확신하고 있고, 우울감은 더 높았다.

성별에 따른 문항별 차이는 다음의 <표 4-3>로 정리할 수 있다.

<표 4-3> 성별차이

(단위: 점)

항목	남자 (n=877)	여자 (n=1122)	t
1. 내 일자리는 안정적이다	3.49 (.875)	3.37 (.980)	2.559 *
2. 나는 내 수입에 만족한다	3.12 (.882)	3.05 (.923)	1.671

항목	남자 (n=877)	여자 (n=1122)	t
3. 나는 현재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한다	3.58 (.794)	3.53 (.775)	1.066
4. 나는 최근 이직을 고려해본 적이 있다	2.60 (1.076)	2.62 (1.087)	-.352
5. 나는 직장, 모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내 의견은 잘 반영되고 있다	3.50 (.746)	3.41 (.762)	2.514 *
6. 내가 노력하면 현재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다	3.12 (.988)	2.83 (1.018)	5.826 ***
7. 나는 국가 및 지역,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투표에 참여한다	3.83 (.851)	3.87 (.868)	-.908
8. 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모임(종교, 동호회, 자원봉사 등)에 참여한다	3.08 (1.061)	3.08 (1.080)	-.146
9. 나는 더 배우고 싶다(고등교육기관 진학, 학위 취득, 평생교육 등)	3.16 (1.040)	3.30 (1.015)	-2.988 **
10. 나는 원하는 만큼 교육을 받았다(초, 중, 고, 대학교)	3.34 (.887)	3.22 (.935)	2.824 **
11. 내가 원하는 직업훈련(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건이 된다	3.00 (.963)	3.01 (.949)	-.427
12. 나는 최근 참여한 교육프로그램(직무관련, 자기개발 등)에 만족한다	3.06 (.840)	3.07 (.787)	-.462
13. 나는 사고나 질병 혹은 경제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3.37 (.839)	3.33 (.819)	.874
14. 나는 외롭거나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와 친척, 이웃 등이 있다	3.71 (.743)	3.81 (.696)	-2.981 **
15. 나는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에 자주 참여한다	2.24 (.894)	2.38 (.953)	-3.320 **
16. 나는 동네일이나 지역사회(대전시) 일에 관심이 많다	2.74 (.957)	2.70 (.940)	.939
17. 나는 자주 우울하다	2.05 (.888)	2.19 (.873)	-3.595 ***
18. 나는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동이나 검진을 받고 있다	3.24 (.903)	3.13 (.949)	2.460 *
19. 나는 건강 유지를 위해 일정 비용을 지출한다 (유기농, 건강식품, 운동 등)	3.17 (.848)	3.18 (.863)	-.282
20. 나는 일상생활을 혼자 불편 없이 할 수 있다	3.94 (.814)	4.04 (.797)	-2.604 *
21. 나는 인적이 뜸한 시간(장소)에 돌아다니는 것이 두렵다	2.48 (.997)	3.26 (1.052)	-16.889 ***

항목	남자 (n=877)	여자 (n=1122)	t
22. 나는 범죄의 피해자가 될까봐 불안하다	2.36 (.964)	3.02 (1.035)	-14.431 ***
23. 나 또는 주변사람이 성범죄(희롱, 추행, 폭력 등) 피해를 경험한 적 있다	1.83 (.905)	2.05 (1.034)	-5.086 ***
24. 나는 위험(재해, 범죄 등)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3.12 (.904)	2.95 (.888)	4.008 ***
25. 나는 살고 있는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해 불안하다	2.64 (.835)	2.84 (.868)	-5.133 ***
26. 나는 하루에 보통 __시간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등)을 돌본다	.65 (1.129)	1.52 (2.098)	-11.911 ***
27. 나는 하루에 보통 __시간 집안일을 한다	.76 (.850)	2.37 (1.480)	-30.465 ***
28. 나는 현재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3.90 (.731)	3.91 (.713)	-.393
29. 나는 가족들과 대화 및 교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3.45 (.749)	3.52 (.752)	-2.174 *
30. 나는 여가 및 문화 향유를 하고 있다(문화행사, 공연, 강좌 등).	3.18 (.887)	3.12 (.878)	1.471
31. 나는 필요한 공공 정보(복지서비스 정보 등)을 잘 알고 있다	3.13 (.853)	3.12 (.834)	.258
32. 나는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3.56 (.807)	3.44 (.835)	3.265 **
33. 나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남성을 먼저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21 (.904)	2.83 (.936)	9.172 ***
34. 나는 조직의 책임자나 리더는 남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09 (.918)	2.58 (.928)	12.274 ***
35. 나는 맞벌이라도 가사와 양육의 주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2.75 (.993)	2.44 (.956)	7.101 ***
36. 나는 현재 남녀 간 지위차이는 능력과 노력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3.21 (.842)	2.96 (.959)	6.194 ***
37. 내 삶은 안정적이다	3.38 (.733)	3.41 (.722)	-.921
38.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3.48 (.749)	3.48 (.702)	-.094
39. 나는 행복하다	3.58 (.702)	3.58 (.671)	-.102

* $p < .05$ ** $p < .01$ *** $p < .001$

종속변수인 ‘주관적 삶의 질·행복’ 문항들은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만을 놓고 보면, 대전시 여성은 일자리 안정성, 의사결정이나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교육 정도에 대한 만족감, 우울함이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안 등 여러 분야에 있어 남성들보다 불행할 요소들을 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있어서는 남성들과 차이가 없다. 달리 말하면, 여성이 딱히 남성보다 더 불행하다거나, 삶에 덜 만족한다거나 하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오히려 “내 삶은 안정적이다”란 문항은 여성의 평균값이 더 높아 몇몇 선행 연구들이 제시하는 ‘여성이 더 행복하다’는 결론을 지지하기도 한다.

삶의 질이나 행복을 주관적으로 측정하는 몇몇 연구들이 여성이 남성보다 더 행복하다거나 혹은 덜 행복하다고 결론짓는 함정이 여기에서도 발견된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와 같은 단순한 질문과 그 응답을 성별로 구분해 분석해낸 연구들은 행복에 대한 남성과 여성 간 정도의 차이만을 나타내는 데 그친다(홍찬숙, 2009). 여성이 생각하는 행복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를 남성과 비교해 차이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

2. 기초자치구별 차이

주관적 삶의 질 평가와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변인들에 대한 기초자치구별 전체 응답자의 평균 차이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문항에서 5개 기초자치구는 유의미한 응답의 차이를 보였다. 높은 수준($p < 0.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문항이 22개다. 주관적 삶의 질·행복 문항은 모두 5개 구별 차이가 나타났고, 사후검정(scheffe) 결과를 살펴봤을 때, 서구와 유성구민의 행복감은 동, 중구와 유의미하게 높았다. 문화·여가 및 필요한 정보 접근과 활용 관련해서도 3개 문항 모두 5개구 별 차이가 있었다. 서구와 유성구민의 정보 접근 및 활용, 여가 활용에 대한 만족감이 동, 중, 대덕구민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직업 안정성을 비롯한 경제

활동분야 그리고 교육활동에 대한 만족감에 있어서도 서구와 유성구민은 다른 구에 비해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지역사회 참여활동에 있어서는 중구가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집단만을 따로 분리하여 여성 내 자치구별 응답의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교육정도 나 일자리 및 수입에 대하여 유성구와 서구 여성들이 더 만족하고 있었다. 생활안전 관련해 불안 정도가 구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환경오염 관련 불안을 제외하고는 자치구별 차이는 없었다. 문화 향유 및 정보 획득 역량 관련해서는 서구와 유성구 여성들이 동구나 중구, 대덕구 여성들에 비해 만족감이나 역량에 대한 자신감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활동, 소득, 여가생활, 정보활용과 획득 등에 있어 여성 집단 내에서도 동서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주관적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의견에서도 서구와 유성구 여성들이 더 만족하고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기초자치구별 차이(여성)

문항	(1) 동구	(2) 중구	(3) 서구	(4) 유성구	(5) 대덕구	F	Scheffe
1. 내 일자리는 안정적이다	3.26 (1.081)	3.22 (1.049)	3.60 (.894)	3.32 (.885)	3.26 (1.044)	4.990**	2<3
2. 나는 내 수입에 만족한다	2.81 (1.001)	2.86 (.982)	3.26 (.877)	3.07 (.838)	3.04 (.912)	6.691***	1,2<3
3. 나는 현재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한다	3.37 (.879)	3.46 (.845)	3.64 (.674)	3.52 (.752)	3.59 (.782)	2.975*	
4. 나는 최근 이직을 고려해본 적이 있다	2.85 (1.208)	2.73 (1.037)	2.59 (1.117)	2.52 (.992)	2.49 (1.063)	2.696*	
5. 나는 직장, 모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내 의견은 잘 반영되고 있다	3.34 (.815)	3.40 (.813)	3.47 (.746)	3.49 (.705)	3.23 (.748)	3.873**	5<3,4
6. 내가 노력하면 현재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다	2.44 (1.099)	2.51 (1.006)	2.98 (.960)	3.08 (.934)	2.85 (.993)	12.643***	1<5 2<3,4
7. 나는 국가 및 지역,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투표에 참여한다	4.04 (.929)	4.01 (.859)	3.83 (.848)	3.77 (.886)	3.78 (.776)	4.331**	4<1
8. 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모임(종교, 동호회, 자원봉사 등)에 참여한다	2.70 (1.193)	2.91 (1.147)	3.32 (.952)	3.27 (.978)	2.83 (1.128)	15.633***	1,2,5<3,4
9. 나는 더 배우고 싶다(고등교육기관 진학, 학위취득, 평생교육 등)	3.43 (1.115)	3.44 (1.074)	3.35 (.974)	3.23 (.946)	3.02 (.990)	5.059***	5<1,2,3
10. 나는 원하는 만큼 교육을 받았다(초, 중, 고, 대학교)	3.17 (.982)	3.04 (.933)	3.32 (.922)	3.36 (.882)	3.00 (.941)	6.585***	5<3 2<4
11. 내가 원하는 직업훈련(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건이 된다	2.77 (.996)	2.90 (1.007)	3.12 (.893)	3.12 (.938)	2.99 (.915)	5.655***	1<3,4
12. 나는 최근 참여한 교육프로그램(직무관련, 자기개발 등)에 만족한다	2.80 (.807)	2.98 (.753)	3.20 (.734)	3.19 (.760)	2.99 (.869)	10.374***	1<3,4
13. 나는 사고나 질병 혹은 경제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3.18	3.30	3.29	3.46	3.43	3.928**	1<4

문항	(1) 동구	(2) 중구	(3) 서구	(4) 유성구	(5) 대덕구	F	Scheffe
하고 있다	(.912)	(.830)	(.788)	(.811)	(.746)		
14. 나는 외롭거나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와 친척, 이웃 등이 있다	3.84 (.777)	3.75 (.683)	3.77 (.711)	3.79 (.670)	3.98 (.596)	3.058 *	2<5
15. 나는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에 자주 참여한다	2.31 (1.000)	2.39 (.953)	2.49 (.965)	2.31 (.864)	2.29 (1.013)	1.959	
16. 나는 동네일이나 지역사회(대전시) 일에 관심이 많다	2.89 (.962)	2.82 (.930)	2.71 (.922)	2.59 (.912)	2.55 (.973)	4.588 **	4,5<1
17. 나는 자주 우울하다	2.44 (.930)	2.31 (.838)	2.11 (.858)	2.10 (.884)	2.15 (.798)	5.935 ***	3,4,5<1
18. 나는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동이나 걷기를 받고 있다	3.17 (1.160)	3.27 (.959)	3.13 (.904)	3.09 (.845)	3.01 (.948)	1.735	
19. 나는 건강 유지를 위해 일정 비용을 지출한다 (유기농, 건강식품, 운동 등)	3.16 (.971)	3.24 (.888)	3.23 (.844)	3.13 (.790)	3.11 (.876)	1.017	
20. 나는 일상생활을 혼자 불편 없이 할 수 있다	4.26 (.814)	4.01 (.695)	4.01 (.799)	4.05 (.826)	3.86 (.777)	5.389 ***	2,3,5<1
21. 나는 인적이 뜸한 시간(장소)에 돌아다니는 것이 두렵다	3.40 (1.056)	3.31 (1.016)	3.18 (1.116)	3.27 (1.046)	3.23 (.930)	1.502	
22. 나는 범죄의 피해자가 될까봐 불안하다	3.11 (.973)	3.05 (.947)	2.95 (1.082)	3.01 (1.088)	3.03 (.993)	.775	
23. 나 또는 주변사람이 성범죄(희롱, 추행, 폭력 등) 피해를 경험한 적 있다	2.00 (1.023)	2.10 (.953)	2.09 (1.092)	2.08 (1.089)	1.87 (.869)	1.488	
24. 나는 위험(재해, 범죄 등)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3.07 (.789)	3.02 (.796)	2.94 (.921)	2.88 (.998)	2.94 (.788)	1.441	
25. 나는 살고 있는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해 불안하다	3.05 (.927)	2.82 (.856)	2.83 (.877)	2.78 (.846)	2.77 (.806)	3.153 *	4,5<1
26. 나는 하루에 보통 __시간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등)을 돌본다	1.79 (2.490)	1.49 (2.048)	1.34 (1.818)	1.58 (1.945)	1.54 (2.497)	1.415	

문항	(1) 동구	(2) 중구	(3) 서구	(4) 유성구	(5) 대덕구	F	Scheffe
27. 나는 하루에 보통 ___ 시간 집안일을 한다	2.48 (1.642)	2.19 (1.273)	2.38 (1.483)	2.49 (1.518)	2.18 (1.406)	1.985	
28. 나는 현재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3.90 (.842)	3.97 (.784)	3.91 (.674)	3.90 (.670)	3.84 (.632)	.692	
29. 나는 가족들과 대화 및 교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3.36 (.866)	3.43 (.711)	3.64 (.703)	3.58 (.727)	3.44 (.762)	5.714***	1<3
30. 나는 여가 및 문화 향유를 하고 있다(문화행사, 공연, 강좌 등.	2.92 (.927)	2.97 (.967)	3.27 (.829)	3.22 (.859)	2.98 (.773)	7.780***	1<4 2,5<3
31. 나는 필요한 공공 정보(복지서비스 정보 등)를 잘 알고 있다	2.95 (.916)	2.95 (.813)	3.30 (.829)	3.21 (.816)	2.95 (.698)	10.025***	1,2,5<3,4
32. 나는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3.26 (.878)	3.32 (.821)	3.55 (.789)	3.53 (.855)	3.33 (.816)	5.825***	1<3,4
33. 나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남성을 먼저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75 (1.030)	2.73 (.921)	2.92 (1.001)	2.85 (.798)	2.76 (.917)	1.814	
34. 나는 조직의 책임자나 리더는 남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38 (.958)	2.46 (.886)	2.67 (.983)	2.69 (.856)	2.52 (.896)	4.461**	1<4
35. 나는 맞벌이러도 가사와 양육의 주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2.42 (1.045)	2.25 (.822)	2.54 (.930)	2.52 (.976)	2.30 (.974)	3.978**	2<3
36. 나는 현재 남녀 간 지위차이는 능력과 노력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3.07 (1.055)	2.87 (.893)	3.01 (1.019)	2.89 (.883)	2.98 (.901)	1.519	
37. 내 삶은 안정적이다	3.27 (.812)	3.22 (.746)	3.50 (.698)	3.51 (.661)	3.37 (.689)	7.499***	1,2<3,4
38.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3.32 (.772)	3.30 (.779)	3.60 (.639)	3.53 (.677)	3.51 (.641)	8.116***	2<4 1<3
39. 나는 행복하다	3.46 (.776)	3.46 (.729)	3.68 (.597)	3.63 (.631)	3.56 (.670)	5.313***	1,2<3

3. 연령대별 차이

주관적 삶의 질 평가와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변인들에 대한 연령대별 전체 응답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관적 삶의 질과 행복감을 묻는 질문에 있어 10세 단위 연령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의 불평등한 젠더관계를 고착화하는 성역할 고정관념 관련한 문항에서는 5,60대가 고정관념에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활용 역량 측면에 있어서는 2,30대에 비해 60대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시간은 3,4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길게 하고 있으나, 가사시간은 20대를 제외하고는 별 차이가 없었다.

여성 집단만을 따로 분리하여 10세 단위 연령대별로 비교해 본 결과, 주관적 삶의 질과 행복에 있어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연령대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연령대가 높은 집단이 고정관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시간에 있어서 3,40대 여성과 그 외 여성 집단 간 차이는 뚜렷했다. 가사시간은 20대 여성이 특히 가사노동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연령대별 차이(여성)

문항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F	Scheffe
1. 내 일자리는 안정적이다	3.53 (.987)	3.48 (1.011)	3.35 (.999)	3.21 (.893)	3.21 (.969)	2.984 *	
2. 나는 내 수입에 만족한다	3.05 (.910)	3.07 (.921)	3.12 (.935)	2.96 (.948)	2.97 (.837)	.871	
3. 나는 현재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한다	3.56 (.766)	3.57 (.735)	3.55 (.796)	3.51 (.782)	3.36 (.810)	.924	
4. 나는 최근 이직을 고려해본 적이 있다	2.78 (1.083)	2.72 (1.097)	2.50 (1.086)	2.63 (1.074)	2.43 (1.061)	2.319	
5. 나는 직장, 모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내 의견은 잘 반영되고 있다	3.31 (.734)	3.45 (.724)	3.46 (.748)	3.43 (.785)	3.37 (.843)	1.494	
6. 내가 노력하면 현재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다	3.14 (.943)	3.03 (1.073)	2.80 (.966)	2.57 (.996)	2.38 (.933)	11.172 ***	5<3 4<1,2
7. 나는 국가 및 지역,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투표에 참여한다	3.73 (.899)	3.76 (.904)	3.89 (.814)	3.98 (.851)	4.00 (.862)	3.967 **	1<5
8. 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모임(종교, 동호회, 자원봉사 등)에 참여한다	2.89 (1.070)	2.95 (1.060)	3.20 (1.054)	3.22 (1.090)	3.11 (1.113)	4.432 **	1<4
9. 나는 더 배우고 싶다(고등교육기관 진학, 학위취득, 평생교육 등)	3.55 (.970)	3.42 (.955)	3.31 (.985)	3.17 (1.067)	2.95 (1.031)	9.467 ***	5<2,3 4<1
10. 나는 원하는 만큼 교육을 받았다(초, 중, 고, 대학교)	3.47 (.897)	3.44 (.847)	3.28 (.880)	2.99 (.985)	2.76 (.909)	20.894 ***	4.5<1,2,3
11. 내가 원하는 직업훈련(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건이 된다	3.08 (.912)	3.05 (.930)	3.04 (.943)	3.00 (1.037)	2.81 (.874)	2.002	
12. 나는 최근 참여한 교육프로그램(직무관련, 자기개발 등)에 만족한다	3.10 (.733)	3.11 (.789)	3.12 (.796)	3.05 (.837)	2.91 (.735)	2.021	
13. 나는 사고나 질병 혹은 경제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3.09	3.41	3.39	3.43	3.28	6.287 ***	1<2,3,4

문항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F	Scheffe
하고 있다	(.818)	(.762)	(.788)	(.854)	(.854)		
14. 나는 외롭거나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와 친척, 이웃 등이 있다	3.78 (.759)	3.82 (.685)	3.85 (.673)	3.81 (.679)	3.73 (.696)	.847	
15. 나는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에 자주 참여한다	2.18 (.860)	2.11 (.826)	2.49 (.921)	2.57 (1.029)	2.55 (1.064)	11.954***	1,2<3,4,5
16. 나는 동네일이거나 지역사회(대전시) 일에 관심이 많다	2.48 (.892)	2.55 (.858)	2.76 (.903)	2.81 (.998)	3.01 (1.004)	9.595***	1<3,4 2<5
17. 나는 자주 우울하다	2.25 (.927)	2.19 (.872)	2.18 (.855)	2.1 (.859)	2.25 (.858)	.594	
18. 나는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동이나 걷기를 받고 있다	2.69 (.888)	2.90 (.867)	3.22 (.902)	3.40 (.968)	3.53 (.891)	28.769***	1,2<3,4 3<5
19. 나는 건강 유지를 위해 일정 비용을 지출한다 (유기농, 건강식품, 운동 등)	2.84 (.829)	3.14 (.806)	3.27 (.821)	3.29 (.920)	3.36 (.864)	11.567***	1<2,3,4,5
20. 나는 일상생활을 혼자 불편 없이 할 수 있다	4.01 (.796)	4.10 (.834)	4.05 (.764)	4.08 (.748)	3.86 (.859)	2.457*	5<2
21. 나는 인적이 뜸한 시간(장소)에 돌아다니는 것이 두렵다	3.34 (1.160)	3.42 (.977)	3.22 (1.052)	3.16 (1.066)	3.15 (.958)	2.722*	
22. 나는 범죄의 피해자가 될까봐 불안하다	3.28 (1.106)	3.15 (.961)	2.88 (1.008)	2.82 (1.083)	3.02 (.922)	8.030***	4<2 3<1
23. 나 또는 주변사람이 성범죄(희롱, 추행, 폭력 등) 피해를 경험한 적 있다	2.20 (1.119)	2.14 (1.136)	2.09 (1.007)	1.92 (.972)	1.78 (.791)	4.940**	5<1,2,3
24. 나는 위험(재해, 범죄 등)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2.99 (.799)	2.92 (.926)	3.04 (.900)	2.87 (.921)	2.94 (.855)	1.446	
25. 나는 살고 있는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해 불안하다	2.72 (.840)	2.90 (.901)	2.87 (.873)	2.87 (.875)	2.81 (.824)	1.376	
26. 나는 하루에 보통 __시간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등)을 돌본다	.69 (2.164)	2.57 (2.410)	2.03 (1.994)	.94 (1.416)	.82 (1.469)	41.003***	1,4,5<2,3

문항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F	Scheffe
27. 나는 하루에 보통 __ 시간 집안일을 한다	.86 (1.044)	2.55 (1.518)	2.79 (1.344)	2.68 (1.257)	2.85 (1.163)	86.286 ***	1<2,3,4,5
28. 나는 현재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3.93 (.699)	3.95 (.650)	3.88 (.695)	3.88 (.787)	3.90 (.748)	.379	
29. 나는 가족들과 대화 및 교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3.49 (.826)	3.64 (.708)	3.49 (.689)	3.45 (.783)	3.56 (.765)	2.423 *	
30. 나는 여가 및 문화 향유를 하고 있다(문화행사, 공연, 강좌 등.	3.41 (.775)	3.19 (.878)	3.05 (.831)	2.97 (.906)	2.97 (.956)	9.544 ***	3,4,5<1
31. 나는 필요한 공공 정보(복지서비스 정보 등)를 잘 알고 있다	3.16 (.847)	3.23 (.854)	3.16 (.794)	3.05 (.843)	2.95 (.823)	3.236 *	5<2
32. 나는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3.77 (.769)	3.65 (.764)	3.47 (.742)	3.23 (.848)	2.89 (.846)	35.174 ***	5<4<2,3 3<1
33. 나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남성을 먼저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59 (.988)	2.71 (.823)	2.74 (.887)	3.01 (.972)	3.23 (.913)	14.328 ***	1,2<4 3<5
34. 나는 조직의 책임자나 리더는 남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40 (.967)	2.41 (.879)	2.49 (.837)	2.74 (.940)	3.01 (.941)	14.600 ***	1,2<4 3<5
35. 나는 맞벌이라도 가사와 양육의 주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2.28 (1.044)	2.33 (.917)	2.34 (.855)	2.59 (.993)	2.82 (.897)	10.450 ***	1<4 2,3<5
36. 나는 현재 남녀 간 지위차이는 능력과 노력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2.73 (1.004)	2.86 (.955)	2.83 (.970)	3.15 (.888)	3.41 (.785)	15.805 ***	1,2,3<4,5
37. 내 삶은 안정적이다	3.42 (.722)	3.44 (.716)	3.38 (.729)	3.39 (.710)	3.41 (.747)	.306	
38.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3.44 (.744)	3.52 (.664)	3.48 (.690)	3.49 (.714)	3.46 (.712)	.404	
39. 나는 행복하다	3.59 (.721)	3.62 (.634)	3.61 (.634)	3.56 (.682)	3.49 (.713)	1.090	

4. 월평균 가구 소득별 차이-전체

주관적 삶의 질 평가와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변인들에 대한 소득 집단별 전체 응답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더 삶에 만족하고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소득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이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회득 및 활용에 있어서도 소득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이 더 활용 능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만 따로 분리하여 가구 소득에 따라 응답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 <표 4-6>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응답 패턴과 같이, 저소득층(100만원 미만과 100~200만원 미만)의 주관적 삶의 질 평가와 행복이 고소득층에 비해 뚜렷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집단별로 유사하게 묶이는 경향은 파악되지 않았다. 평균값으로 볼 때, 중간계층(200~300만원, 300~400만원)의 고정관념이 강해 보인다.

소득이 낮은 집단의 여성들은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만족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건과 관련한 불안감은 소득 집단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다.

흥미로운 점은 자원봉사 활동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소득이 낮은 집단에 속한 여성일수록 강하다는 점이다.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의 여성들이 자원봉사에도 많이 참여하고 지역사회에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월평균 가구 소득별 차이(여성)

문항	(1) 100만원 미만	(2) 100 ~200만원 미만	(3) 200 ~300만원 미만	(4) 300 ~400만원 미만	(5) 400 ~500만원 미만	(6) 500만원 이상	F	Scheffe
1. 내 일자리는 안정적이다	2.81 (1.078)	3.14 (1.113)	3.57 (.947)	3.28 (.990)	3.38 (.898)	3.62 (.848)	6.985 ****	1<3,5 2<6
2. 나는 내 수입에 만족한다	2.58 (1.119)	2.70 (.937)	3.06 (.899)	3.03 (.993)	3.18 (.802)	3.30 (.849)	8.709 ****	1<3 2<5,6
3. 나는 현재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한다	3.39 (.715)	3.32 (.838)	3.47 (.878)	3.58 (.816)	3.60 (.652)	3.68 (.704)	4.012 **	
4. 나는 최근 이직을 고려해본 적이 있다	3.10 (1.012)	2.92 (1.080)	2.52 (1.100)	2.57 (1.105)	2.59 (1.064)	2.41 (1.044)	4.571 ****	3,6<1
5. 나는 직장, 모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내 의견은 잘 반영되고 있다	3.21 (1.000)	3.28 (.788)	3.46 (.829)	3.45 (.736)	3.39 (.657)	3.54 (.745)	3.056 *	1<6
6. 내가 노력하면 현재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다	2.65 (1.199)	2.52 (.989)	2.94 (.994)	2.90 (1.040)	2.82 (.940)	3.01 (1.057)	4.000 **	
7. 나는 국가 및 지역,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투표에 참여한다	4.04 (.884)	3.97 (.881)	3.90 (.894)	3.82 (.959)	3.71 (.784)	4.00 (.775)	3.792 **	
8. 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모임(종교, 동호회, 자원봉사 등)에 참여한다	3.04 (1.233)	2.82 (1.144)	3.03 (1.121)	3.30 (1.003)	3.17 (.988)	3.00 (1.108)	4.628 ****	2<4
9. 나는 더 배우고 싶다(고등교육기관 진학, 학위취득, 평생교육 등)	3.34 (1.069)	3.48 (1.032)	3.22 (1.105)	3.31 (.993)	3.24 (.903)	3.30 (1.060)	1.573	
10. 나는 원하는 만큼 교육을 받았다(초, 중, 고, 대학교)	2.91 (.880)	3.17 (.995)	3.13 (1.075)	3.31 (.913)	3.20 (.844)	3.38 (.843)	3.005 *	1<4,6
11. 내가 원하는 직업훈련(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건이 된다	2.84 (.797)	2.88 (.930)	2.99 (1.030)	3.14 (.897)	3.05 (.878)	3.00 (1.064)	1.910	
12. 나는 최근 참여한 교육프로그램(직무관련, 자기개발 등)에 만족한다	2.91	2.95	3.06	3.14	3.12	3.09	1.879	

13. 나는 사고나 질병 혹은 경제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707)	(.746)	(.773)	(.765)	(.786)	(.878)		
14. 나는 외롭거나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와 친척, 이웃 등이 있다	2.96 (.884)	3.07 (.855)	3.31 (.796)	3.40 (.828)	3.47 (.716)	3.43 (.849)	8.272 ***	1<3 2<4,5,6
15. 나는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에 자주 참여한다	3.66 (.867)	3.75 (.713)	3.90 (.691)	3.84 (.668)	3.78 (.644)	3.82 (.743)	1.541	
16. 나는 동네일이나 지역사회(대전시) 일에 관심이 많다	2.67 (1.064)	2.23 (.912)	2.42 (.994)	2.48 (.980)	2.33 (.880)	2.30 (.958)	2.727 *	2<1
17. 나는 자주 우울하다	2.99 (.945)	2.80 (.884)	2.79 (.991)	2.70 (.883)	2.59 (.924)	2.61 (1.007)	2.707 *	5<1
18. 나는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동이나 걷기를 받고 있다	2.62 (.945)	2.47 (.850)	2.38 (.851)	2.13 (.841)	2.01 (.826)	1.96 (.863)	13.844 ***	5,6<2,3 4<1
19. 나는 건강 유지를 위해 일정 비용을 지출한다 (유기농, 건강 식품, 운동 등)	3.17 (1.070)	3.15 (.946)	3.20 (1.001)	3.19 (.934)	3.02 (.906)	3.12 (.939)	1.185	
20. 나는 일상생활을 혼자 불편 없이 할 수 있다	2.97 (.934)	3.10 (.904)	3.22 (.902)	3.18 (.854)	3.18 (.778)	3.26 (.891)	1.227	
21. 나는 인적이 뜸한 시간(장소)에 돌아다니는 것이 두렵다	3.85 (.780)	3.97 (.747)	4.08 (.874)	4.08 (.821)	4.00 (.760)	4.10 (.768)	1.388	
22. 나는 범죄의 피해자가 될까봐 불안하다	3.32 (.887)	3.32 (1.091)	3.18 (1.010)	3.29 (1.078)	3.23 (1.046)	3.29 (1.081)	.508	
23. 나 또는 주변사람이 성범죄(희롱, 추행, 폭력 등) 피해를 경험한 적 있다	3.09 (.905)	3.13 (1.000)	3.02 (.983)	2.95 (1.093)	2.98 (1.075)	3.03 (1.022)	.750	
24. 나는 위험(재해, 범죄 등)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2.22 (1.082)	2.22 (1.104)	1.99 (1.001)	1.91 (.939)	2.16 (1.085)	1.91 (.987)	3.709 **	
25. 나는 살고 있는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해 불안하다	2.91 (.654)	2.91 (.808)	2.84 (.886)	3.03 (.955)	2.99 (.894)	3.00 (.912)	1.264	
26. 나는 하루에 보통 _시간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등)을 돌본다	2.72 (.800)	2.83 (.910)	2.81 (.943)	2.91 (.832)	2.88 (.782)	2.75 (.926)	.980	
	1.40 (2.153)	1.39 (2.086)	1.67 (2.615)	1.84 (2.113)	1.39 (1.842)	1.25 (1.671)	2.263 *	

27. 나는 하루에 보통 __ 시간 집안일을 한다	2.35 (1.521)	2.09 (1.420)	2.43 (1.367)	2.71 (1.453)	2.52 (1.575)	1.87 (1.379)	8.630	***	6<5 2<4
28. 나는 현재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3.63 (.895)	3.76 (.874)	3.90 (.741)	4.00 (.705)	3.94 (.569)	3.97 (.626)	3.977	**	1<4,5,6
29. 나는 가족들과 대화 및 교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3.26 (.744)	3.29 (.792)	3.55 (.813)	3.65 (.704)	3.61 (.654)	3.50 (.780)	6.955	***	1,2<4,5
30. 나는 여가 및 문화 향유를 하고 있다(문화행사, 공연, 강좌 등.	2.85 (.859)	2.93 (.901)	3.04 (.985)	3.18 (.793)	3.24 (.800)	3.19 (.908)	4.350	**	1<5
31. 나는 필요한 공공 정보(복지서비스 정보 등)를 잘 알고 있다	2.89 (.729)	2.84 (.849)	3.00 (.861)	3.24 (.792)	3.27 (.791)	3.21 (.844)	8.993	***	1<4,5 2<6
32. 나는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3.15 (.859)	3.23 (.880)	3.32 (.890)	3.49 (.818)	3.57 (.738)	3.59 (.812)	7.022	***	1<4 2<6
33. 나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남성을 먼저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55 (.775)	2.67 (.996)	2.90 (.990)	2.89 (.880)	2.96 (.885)	2.67 (.957)	4.358	**	1<5
34. 나는 조직의 책임자나 리더는 남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51 (.856)	2.34 (.933)	2.67 (.938)	2.67 (.913)	2.68 (.910)	2.43 (.927)	4.783	***	
35. 나는 맞벌이라든가 사와 양육의 주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2.43 (.878)	2.25 (.852)	2.59 (.985)	2.51 (.964)	2.54 (.935)	2.20 (.997)	5.535	***	
36. 나는 현재 남녀 간 지위차이는 능력과 노력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3.00 (.933)	2.85 (1.000)	3.08 (1.042)	3.07 (.930)	2.94 (.857)	2.82 (.990)	2.438	*	
37. 내 삶은 인정적이다	2.87 (.769)	3.12 (.797)	3.40 (.707)	3.50 (.697)	3.50 (.624)	3.57 (.691)	15.113	***	1<3 2<4,5,6
38.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2.96 (.751)	3.25 (.775)	3.46 (.745)	3.58 (.655)	3.61 (.602)	3.56 (.649)	13.050	***	1<2,3 2<4,5,6
39. 나는 행복하다	3.28 (.826)	3.37 (.791)	3.57 (.705)	3.65 (.615)	3.68 (.573)	3.66 (.605)	7.671	***	1<3 2<4,5,6

5. 경제활동상태별 차이-전체

주관적 삶의 질 평가와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변인들에 대한 경제활동상태별 전체 응답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정규상근직 집단이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직 집단보다 더 행복하고 삶의 질에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지 않는 집단도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일하지 않는 집단의 상당수가 여성인 점으로 미루어, 주부들의 행복감이 크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정규상근직의 가사노동시간은 다른 집단에 비해 적었으며, 가족관계에 있어 비정규직의 만족감이 특히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복지와 경제적 위험 요인들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울감이나 신체 건강에 있어서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만을 따로 분리해,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응답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주관적 삶의 질과 행복에 있어 정규상근직과 비정규 상근직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삶의 안정성은 비정규직이 정규상근직이나 일하지 않는 여성들에 비해 뚜렷하게 낮으며, 삶에 대한 만족감은 정규상근직에 비해 비정규직 및 파트타임직이 뚜렷하게 낮았다. 행복에 대한 문항도 집단별 차이가 있었으나, 유사 집단끼리 묶이는 패턴은 나타나지 않았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있어 4개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한데, 특히 일하지 않는 여성의 고정관념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가사 및 돌봄시간은 일하지 않는 여성이 가장 길지만, 정규상근직 여성의 돌봄시간 평균이 일하지 않는 여성 다음으로 높았다. 부지기 파트타임직 여성의 교육년 및 활동에 대한 만족감이 뚜렷하게 낮았으며, 질병이나 경제적 위기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이 비정규직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경제활동 상태별 차이(여성)

문항	(1) 정규 상근	(2) 비정규 상근	(3) 부정기 파트타임	(4) 일하지 않음	F	Scheffe
1. 내 일자리는 안정적이다	3.63 (.847)	2.81 (1.023)	2.60 (.917)		81.822 ***	2,3<1
2. 나는 내 수입에 만족한다	3.19 (.899)	2.70 (.864)	2.75 (.983)		22.573 ***	2,3<1
3. 나는 현재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한다	3.61 (.741)	3.36 (.841)	3.35 (.787)		8.855 ***	2,3<1
4. 나는 최근 이직을 고려해본 적이 있다	2.56 (1.093)	2.73 (1.117)	2.84 (.924)		2.993	
5. 나는 직장, 모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내 의견은 잘 반영되고 있다	3.45 (.743)	3.17 (.778)	3.12 (.802)	3.53 (.737)	12.532 ***	2,3<1,4
6. 내가 노력하면 현재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다	3.01 (.974)	2.44 (1.038)	2.28 (.861)		32.947 ***	2,3<1
7. 나는 국가 및 지역,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투표에 참여한다	3.89 (.829)	3.78 (.938)	3.68 (.854)	3.92 (.894)	2.114	
8. 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모임(종교, 동호회, 자원봉사 등)에 참여한다	3.07 (1.058)	3.07 (1.066)	2.85 (1.083)	3.16 (1.119)	1.630	
9. 나는 더 배우고 싶다(고등교육기관 진학, 학위취득, 평생교육 등)	3.40 (.987)	3.37 (1.007)	2.90 (.964)	3.19 (1.047)	7.187 ***	3<1,2
10. 나는 원하는 만큼 교육을 받았다(초, 중, 고, 대학교)	3.34 (.903)	3.08 (.981)	2.78 (.709)	3.18 (.967)	9.978 ***	3<1,2,4
11. 내가 원하는 직업훈련(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건이 된다	3.00 (.980)	2.92 (.954)	2.84 (.940)	3.12 (.888)	2.779 *	
12. 나는 최근 참여한 교육프로그램(직무관련, 자기개발 등)에 만족한다	3.12 (.832)	2.92 (.860)	2.85 (.761)	3.12 (.651)	4.915 **	3<1,4

13. 나는 사고나 질병 혹은 경제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3.40 (.778)	3.07 (.835)	3.47 (.743)	3.33 (.865)	7.849 ***	2<1,3,4
14. 나는 외롭거나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와 친척, 이웃 등이 있다	3.85 (.677)	3.68 (.732)	3.77 (.688)	3.81 (.705)	2.766 *	
15. 나는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에 자주 참여한다	2.34 (.904)	2.42 (.924)	2.25 (.920)	2.43 (1.046)	1.132	
16. 나는 동네일이나 지역사회(대전시) 일에 관심이 많다	2.66 (.916)	2.86 (.900)	2.46 (.854)	2.75 (1.002)	3.649 *	3<2
17. 나는 자주 우울하다	2.20 (.875)	2.31 (.908)	2.16 (.857)	2.13 (.851)	1.665	
18. 나는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동이나 검진을 받고 있다	3.11 (.896)	3.13 (1.009)	3.03 (.930)	3.20 (1.007)	.928	
19. 나는 건강 유지를 위해 일정 비용을 지출한다 (유기농, 건강식품, 운동 등)	3.17 (.855)	3.10 (.843)	3.10 (.848)	3.25 (.887)	1.351	
20. 나는 일상생활을 혼자 불편 없이 할 수 있다	4.07 (.762)	3.92 (.815)	3.93 (.654)	4.07 (.863)	2.234	
21. 나는 인적이 뜸한 시간(장소)에 돌아다니는 것이 두렵다	3.35 (1.049)	3.07 (1.037)	3.38 (.898)	3.19 (1.077)	4.263 **	
22. 나는 범죄의 피해자가 될까봐 불안하다	3.06 (1.043)	2.90 (.964)	3.22 (.928)	2.96 (1.072)	2.216	
23. 나 또는 주변사람이 성범죄(희롱, 추행, 폭력 등)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	2.08 (1.031)	2.15 (1.090)	2.21 (1.087)	1.92 (.988)	3.062 *	
24. 나는 위험(재해, 범죄 등)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2.97 (.875)	3.01 (.781)	2.93 (.779)	2.91 (.978)	.570	
25. 나는 살고 있는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해 불안하다	2.83 (.880)	2.96 (.869)	2.74 (.822)	2.81 (.854)	1.554	
26. 나는 하루에 보통 __시간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등)을 돌본다	1.38 (1.681)	1.36 (1.870)	1.29 (1.869)	1.87 (2.737)	4.470 **	
27. 나는 하루에 보통 __시간 집안일을 한다	2.13	2.45	2.38	2.72	11.558 ***	1<4

	(1.338)	(1.446)	(1.389)	(1.659)		
28. 나는 현재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3.93 (.680)	3.74 (.804)	3.88 (.801)	3.95 (.693)	3.888 **	
29. 나는 가족들과 대화 및 교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3.52 (.762)	3.26 (.786)	3.47 (.683)	3.67 (.693)	11.780 ***	2<1,4
30. 나는 여가 및 문화 향유를 하고 있다(문화행사, 공연, 강좌 등.	3.13 (.872)	2.99 (.907)	3.01 (.872)	3.19 (.869)	2.095	
31. 나는 필요한 공공 정보(복지서비스 정보 등)를 잘 알고 있다	3.14 (.832)	2.95 (.806)	2.99 (.801)	3.20 (.846)	4.305 **	
32. 나는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3.49 (.801)	3.23 (.801)	3.31 (.851)	3.47 (.888)	5.025 **	2<1
33. 나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남성을 먼저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76 (.934)	2.74 (.968)	2.76 (.883)	2.99 (.920)	4.656 **	
34. 나는 조직의 책임자나 리더는 남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48 (.920)	2.50 (.881)	2.57 (.886)	2.78 (.943)	8.115 ***	1<4
35. 나는 맞벌이라도 가사와 양육의 주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2.34 (.931)	2.46 (.959)	2.34 (.874)	2.62 (.986)	6.527 ***	
36. 나는 현재 남녀 간 지위차이는 능력과 노력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2.34 (.931)	2.46 (.959)	2.34 (.874)	2.62 (.986)	5.992 ***	3<4
37. 내 삶은 안정적이다	3.47 (.650)	3.09 (.818)	3.21 (.764)	3.50 (.729)	16.289 ***	2<1,4
38.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3.53 (.656)	3.31 (.801)	3.31 (.675)	3.52 (.713)	6.061 ***	2,3<1
39. 나는 행복하다	3.62 (.646)	3.42 (.766)	3.53 (.634)	3.62 (.659)	4.333 **	

제3절 연구모형의 검증

1. 탐색적 요인분석

대전시 여성이 현재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삶에 대한 만족도와 안정감 그리고 행복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 분석의 일환으로 여러 세부변수들을 정리하고자 했다.

41개 측정 항목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채택하였다.

성별 구분 없이 모든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4-8>로 정리된다.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전체 응답자의 경우 $\chi^2 = 8010.572$ (Sig.=0.000), 남성 응답자의 경우 $\chi^2 = 3385.337$ (Sig.=0.000), 여성 응답자의 경우 $\chi^2 = 4502.028$ (Sig.=0.000)이므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룬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적합도 점검결과 전체 응답자의 경우 KMO 값=0.643, 남성 응답자의 경우 KMO값=0.654, 여성응답자의 경우 KMO값=0.637로 나타났다.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은 1.0 이상, 요인적재치는 ± 0.4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총 34개 문항 중 20개 문항이 이론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되어 최종적으로 14개 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 때, 본 연구의 경우 남녀의 비교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전체와 남녀 표본 간 일치된 문항으로 요인을 분류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은 경제활동에 대한 만족감 관련 문항은 답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요인 분석은 경제활동 만족감 문항들을 제외하고 실행됐다.

요인 1은 ‘교육만족도’로, 직업훈련 참여 여건이나 만족도를 측정하는 변인으

로 구성됐다. 요인 2은 ‘사회적 관계’로 지역사회 참여 활동과 관심 정도를 측정하는 변인이며, 요인 3는 ‘건강상태와 관리’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활동과 비용 변인으로 이루어졌다. 요인 4는 ‘생활안전 만족’으로, 성범죄 피해 여부나 범죄 피해 관련한 불안 변인들로 구성됐다. 요인 5는 ‘문화 및 정보획득 역량’으로, 문화 향유 만족도 및 정보 획득 역량에 대한 만족 변인들로 구성됐다. 요인 6은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기존의 불평등한 젠더 질서를 지지하는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변인들로 구성됐다. 이 6개의 요인 적재 값이 $\pm .40$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모두 $.6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 요인은 ‘주관적 삶의 질·행복’으로 명명했으며, 이는 추후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에서 종속요인으로 활용됐다.

〈표 4-8〉 요인분석(전체)

요인	변수명	요인 재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 설명력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 α
교육 만족도	1. 내가 원하는 직업훈련(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건이 된다	.861	.767	1.660	11.854		.768
	2. 나는 최근 참여한 교육프로그램(직무관련, 자기개발 등)에 만족한다	.852	.778				
	3. 나는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에 자주 참여한다	.659	.517				
	4. 나는 동네일이나 지역사회(대전시) 일에 관심이 많다	.729	.567	2.102	15.013		
건강 상태와 관리	5. 나는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동이나 검진을 받고 있다	.760	.607				.726
	6. 나는 건강 유지를 위해 일정 비용을 지출한다 (유기농, 건강식품, 운동 등) (역문항)7. 나는 인적이 뜬한 시간(장소)에 돌아다니는 것이 두렵다 (역문항)8. 나는 범죄의 피해자가 될까봐 불안하다	.706	.596	2.102	15.013		
생활 안전 만족	9. 나는 여가 및 문화 향유를 하고 있다(문화행사, 공연, 강좌 등)	.924	.865	1.740	12.425		.844
	10. 나는 필요한 공공 정보(복지서비스 정보 등)를 잘 알고 있다	.928	.866				
	11. 나는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712	.566			.679	
문화및 정보 획득 역량	12. 나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남성을 먼저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807	.694	1.970	14.073	.545	.715
	13. 나는 조직의 책임자나 리더는 남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797	.652			.647	
	14. 나는 차별이라도 가사와 양육의 주책임은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887	.717			.664	
		.731	.794	2.064	14.741	.555	
성역할 고정 관념		.843	.550			.804	.762

KMO(Kaiser-Meyer-Olkin)값=.643, Bartlett : $\chi^2 = 8010.572$ (Sig.=0.000)

<표 4-9> 요인분석(남성)

요인	변수명	요인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 설명력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 α
교육 만족도	1. 내가 원하는 직업훈련(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건이 된다	.852	.764	1.643	11.736		.763
	2. 나는 최근 참여한 교육프로그램(직무관련, 자기개발 등)에 만족한다	.848	.781				
	3. 나는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에 자주 참여한다	.642	.493	2.077	14.832		.621
	4. 나는 동네일이나 지역사회(대진시) 일에 관심이 많다	.736	.577				
건강 상태와 관리	5. 나는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동이나 검진을 받고 있다	.753	.608	2.077	14.832		.737
	6. 나는 건강 유지를 위해 일정 비용을 지출한다 (유기농, 건강식품, 운동 등)	.694	.629				
생활 안전 만족	(역문항)7. 나는 인적이 뜬한 시간(장소)에 돌아다니는 것이 두렵다	.918	.853	1.732	12.374		.828
	(역문항)8. 나는 범죄의 피해자가 될까봐 불안하다	.913	.839				
문화및 정보 획득 역량	9. 나는 여가 및 문화 향유를 하고 있다(문화행사, 공연, 강좌 등)	.714	.592	2.000	14.285		.713
	10. 나는 필요한 공공 정보(복지서비스 정보 등)를 잘 알고 있다	.787	.681				
	11. 나는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781	.628				
상역할 고정 관념	12. 나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남성을 먼저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827	.703	1.975	14.110		.724
	13. 나는 조직의 책임자나 리더는 남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877	.777				
	14. 나는 맞벌이라도 가사와 양육의 주책임은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696	.504				
KMO(Kaiser-Meyer-Olkin)값=.654, Bartlett : $\chi^2 = 3385.337$ (Sig.=0.000)							

<표 4-10> 요인분석(여성)

요인	변수명	요인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 설명력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 α
교육 만족도	1. 내가 원하는 직업훈련(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건이 된다	.854	.753	1.697	12.119		.772
	2. 나는 최근 참여한 교육프로그램(직무관련, 자기개발 등)에 만족한다	.846	.766				
	3. 나는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에 자주 참여한다	.665	.552				
	4. 나는 동네일이나 지역사회(대진시) 일에 관심이 많다	.730	.599	2.117	15.122		
건강 상태와 관리	5. 나는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동이나 검진을 받고 있다	.768	.618				.720
	6. 나는 건강 유지를 위해 일정 비용을 지출한다 (유기농, 건강식품, 운동 등)	.709	.588	2.117	15.122		
생활 안전 만족	(역문항)7. 나는 인적이 뜬한 시간(장소)에 돌아다니는 것이 두렵다	.910	.838				.819
	(역문항)8. 나는 범죄의 피해자가 될까봐 불안하다	.916	.850	1.717	12.262		
문화및 정보 획득 역량	9. 나는 여가 및 문화 향유를 하고 있다(문화행사, 공연, 강좌 등)	.715	.563			.698	.716
	10. 나는 필요한 공공 정보(복지서비스 정보 등)를 잘 알고 있다	.826	.712	1.960	13.998	.536	
	11. 나는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792	.675			.640	
상업활 고정 관념	12. 나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남성을 먼저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836	.708			.674	.765
	13. 나는 조직의 책임자나 리더는 남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891	.799	2.096	14.969	.555	
	14. 나는 맞벌이라도 가사와 양육의 주책임은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733	.565			.804	

KMO(Kaiser-Meyer-Olkin)값=.637, Bartlett : $\chi^2 = 4502.028$ (Sig.=0.000)

1-1. 탐색적 요인분석2: 일하는 집단

다음 <표 4-11>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측정변수는 척도 순화과정을 통하여 일부항목을 제거하였다. 먼저, 타당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채택하였다.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chi^2 = 8041.355(\text{Sig.}=0.000)$,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남성 응답자의 경우

$\chi^2 = 3958.629(\text{Sig.}=0.000)$,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응답자의 경우

$\chi^2 = 3948.385(\text{Sig.}=0.000)$ 이므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적합도 점검결과 전체 응답자의 경우 KMO 값=0.695,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남성 응답자의 경우 KMO값=0.707,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응답자의 경우 KMO값=0.673로 나타났다.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은 1.0 이상, 요인적재치는 ± 0.4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총 34개 문항 중 16개 문항이 이론 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되어, 최종적으로 18개 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 때, 본 연구의 경우 남녀의 비교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전체와 남녀 표본 간 일치된 문항으로 요인을 분류하였다.

요인 1은 ‘경제활동’으로, 일자리 안정성, 수입에 대한 만족, 하는 일에 대한 만족 정도를 측정하는 변인으로 구성됐다. 요인 2는 ‘교육만족도’로, 직업훈련 참여 여건이나 만족도를 측정하는 변인으로 구성됐다. 요인 3은 ‘사회적 관계’로 지역사회 참여 활동과 관심 정도를 측정하는 변인이며, 요인 4는 ‘건강상태와 관리’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활동과 비용 변인으로 이루어졌다. 요인 5는 ‘생활안전 만족’으로, 성범죄 피해 여부나 범죄 피해 관련한 불안 변인들로 구성됐다. 요인 6는 ‘문화 및 정보획득 역량’으로, 문화 향유 만족도 및 정보 획득 역량에 대한 만족 변인들로 구성됐다. 요인 7은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기존의 불평등한 젠더 질서를 지지하는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변인들로 구성됐다.

이 7개의 요인 적재 값이 $\pm .40$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모두 .6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1〉 요인분석(경제활동인-전체)

요인	변수명	요인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 설명력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 α
경제 활동	1. 내 일자리는 안정적이다	.816	.685	2.317	12.872	.624	.740
	2. 나는 내 수입에 만족한다	.826	.706				
	3. 나는 현재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한다	.726	.576				
	4. 내가 노력하면 현재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다	.559	.465				
교육 만족도	5. 내가 원하는 직업훈련(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건이 된다	.835	.725	1.685	9.361		.747
	6. 나는 최근 참여한 교육프로그램(직무관련, 자기개발 등)에 만족한다	.827	.752				
	7. 나는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에 자주 참여한다	.639	.511				
	8. 나는 동네일이나 지역사회(대진시) 일에 관심이 많다	.730	.565				
건강 상태와 관리	9. 나는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동이나 검진을 받고 있다	.732	.581	2.065	11.475		.730
	10. 나는 건강 유지를 위해 일정 비용을 지출한다 (유기농, 건강식품, 운동 등)	.690	.598				
생활 안전 만족	(역문항)11. 나는 인적이 뜸한 시간(장소)에 돌아다니는 것이 두렵다	.918	.860	1.740	9.665		.842
	(역문항)12. 나는 범죄의 피해자가 될까봐 불안하다	.927	.864				
문화및 정보 획득 역량	13. 나는 여가 및 문화 향유를 하고 있다(문화행사, 공연, 강좌 등)	.709	.569	1.968	10.932	.670	.715
	14. 나는 필요한 공공 정보(복지서비스 정보 등)를 잘 알고 있다	.787	.678				
	15. 나는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794	.652				
성역할 고정 관념	16. 나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남성을 먼저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840	.713	2.084	11.575	.672	.767
	17. 나는 조직의 책임자나 리더는 남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885	.797				
	18. 나는 맞벌이라도 가사와 양육의 주책임은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737	.561				
KMO(Kaiser-Meyer-Olkin)값=.695, Bartlett : χ^2 =8041.355(Sig.=0.000)							

〈표 4-12〉 요인분석(경제활동인-남성)

요인	변수명	요인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 설명력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 α
경제 활동	1. 내 일자리는 안정적이다	.825	.699	2.293	12.740	.612	.732
	2. 나는 내 수입에 만족한다	.801	.687				
	3. 나는 현재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한다	.728	.581				
	4. 내가 노력하면 현재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다	.525	.479				
교육 만족도	5. 내가 원하는 직업훈련(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건이 된다	.825	.721	1.732	9.624		.750
	6. 나는 최근 참여한 교육프로그램(직무관련, 자기개발 등)에 만족한다	.829	.766				
	7. 나는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에 자주 참여한다	.643	.513				
	8. 나는 동네일이나 지역사회(대진시) 일에 관심이 많다	.727	.569				
건강 상태와 관리	9. 나는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동이나 검진을 받고 있다	.731	.583	2.064	11.465		.721
	10. 나는 건강 유지를 위해 일정 비용을 지출한다 (유기농, 건강식품, 운동 등)	.664	.601				
생활 안전 만족	(역문항)11. 나는 인적이 뜸한 시간(장소)에 돌아다니는 것이 두렵다	.913	.848	1.742	9.677		.828
	(역문항)12. 나는 범죄의 피해자가 될까봐 불안하다	.912	.838				
문화및 정보 획득 역량	13. 나는 여가 및 문화 향유를 하고 있다(문화행사, 공연, 강좌 등)	.708	.602	1.977	10.983	.649	.715
	14. 나는 필요한 공공 정보(복지서비스 정보 등)를 잘 알고 있다	.790	.686				
	15. 나는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776	.629				
성역할 고정 관념	16. 나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남성을 먼저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831	.711	1.979	10.992	.605	.724
	17. 나는 조직의 책임자나 리더는 남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879	.780				
	18. 나는 핏말이라도 가사와 양육의 주책임은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691	.494				

KMO(Kaiser-Meyer-Olkin)값=.707, Bartlett : $\chi^2 = 3958.629$ (Sig.=0.000)

〈표 4-13〉 요인분석(경제활동인-여성)

요인	변수명	요인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 설명력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 α
경제 활동	1. 내 일자리는 안정적이다	.808	.672	2.340	12.999	.634	.746
	2. 나는 내 수입에 만족한다	.837	.731				
	3. 나는 현재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한다	.725	.571				
	4. 내가 노력하면 현재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다	.589	.467				
교육 만족도	5. 내가 원하는 직업훈련(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건이 된다	.821	.701	1.693	9.406		.744
	6. 나는 최근 참여한 교육프로그램(직무관련, 자기개발 등)에 만족한다	.805	.721				
사회적 관계	7. 나는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에 자주 참여한다	.612	.539	2.070	11.502		.678
	8. 나는 동네일이나 지역사회(대전시) 일에 관심이 많다	.715	.573				
건강 상태와 관리	9. 나는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동이나 검진을 받고 있다	.754	.606	2.070	11.502		.737
	10. 나는 건강 유지를 위해 일정 비용을 지출한다 (유기농, 건강식품, 운동 등)	.724	.618				
생활 안전 만족	(역문항)11. 나는 인적이 뜸한 시간(장소)에 돌아다니는 것이 두렵다	.907	.833	1.716	9.533		.810
	(역문항)12. 나는 범죄의 피해자가 될까봐 불안하다	.914	.844				
문화 및 정보 획득 역량	13. 나는 여가 및 문화 향유를 하고 있다(문화행사, 공연, 강좌 등)	.721	.564	1.954	10.854	.689	.712
	14. 나는 필요한 공공 정보(복지서비스 정보 등)를 잘 알고 있다	.801	.694				
	15. 나는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786	.668				
성역할 고정 관념	16. 나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남성을 먼저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817	.685	2.095	11.638	.679	.761
	17. 나는 조직의 책임자나 리더는 남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878	.784				
	18. 나는 맞벌이라도 가사와 양육의 주책임은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752	.598				

KMO(Kaiser-Meyer-Olkin) 값 = 673, Bartlett : $\chi^2 = 3948.385$ (Sig. = 0.000)

2. 상관관계 분석

세부문항들을 요인으로 묶어 정리하고, 주관적 삶의 질·행복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요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상관분석은 변수들 간 관계의 강도를 보여주며 관계의 강도는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모든 응답자의 요인 간 상관관계 및 성별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행복’ 이 다른 요인들과 얼마나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다음의 표로 살펴볼 수 있다.

〈표 4-15〉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 (Inter-Construct Correlations) (남성)

연령	교육년수	자녀수	돌봄시간	가사시간	교육만족도	사회적관계	건강상태와관리	생활안전만족	문화및정보획득역량	성역할고정관념	주관적삶의질행복
1											
교육년수	1										
자녀수	-.014	1									
돌봄시간	.679	.089**	1								
가사시간	.130**	.003	.360**	1							
교육만족도	.004	.029	.000	.385	1						
사회적관계	.916	-.035	.074*	-.005	.190**	1					
건강상태와관리	.000	.296	.028	.876	.000	.133**	1				
생활안전만족	.114**	.174**	.128**	.133**	.000	.373**	.001	1			
문화및정보획득역량	.001	.000	.066*	.089**	.156**	.000	.987	.080*	1		
성역할고정관념	.269**	.262**	.000	.050	.000	.002	.285**	.018	.011	1	
주관적삶의질행복	.000	.000	.005	.008	.000	.962	.000	-.074*	.740	.095**	1
	-.089**	-.123**	.888	.010	-.104**	.000	.000	.042	.486**	.005	
	.009	.000	.000	.763	.002	.226**	.000	.218	.000		
	-.213**	-.131**	-.031	-.058	.337**	.000	.000	.029	.000		
	.000	.000	.359	.085	.000	.048	.084*	.042	.000		
	.113**	.133**	-.020	-.020	.100*	.157	.013	.042	.000		
	.001	.000	.563	.552	.003	.202**	.340**	.005	.000		
	-.008	.109**	.004	-.061	.250**	.000	.000	.005	.000		
	.822	.001	.908	.072	.000	.000	.000	.005	.000		

〈표 4-16〉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 (Inter-Construct Correlations) (여성)

연령	교육년수	자녀수	돌봄시간	가사시간	교육만족도	사회적관계	건강상태와 관리	생활안전 만족	문화 및 정보 획득역량	성역할 고정 관념	주관적 삶의질 행복
1											
교육년수	1										
자녀수	-.245**	1									
돌봄시간	.215**	.201**	1								
가사시간	-.124**	.449**	.320**	1							
교육만족도	.205**	-.012	.100**	-.027	1						
사회적관계	.004	.128**	.061*	.104**	.201**	1					
건강상태와 관리	.891	.693	.042	.000	.000	.353**	1				
생활안전 만족	-.038	.188**	.026	.157**	.080**	.018	.072*	1			
문화및정보 획득역량	.199	.000	.385	.000	.007	.543	.017	.182**	1		
성역할 고정관념	-.014	.129**	.119**	.078**	.010	.000	.000	-.014	.645	1	
주관적 삶의질 행복	.636	.000	.013	-.079**	.293**	.000	.000	.122**	-.051	.087	1
	.259**	-.153**	.674	.116**	-.067*	.050	.047	.115	.431**	.135**	.000
	.000	.000	.047	.000	.025	.096	.115	.051	.000	.086	.000
	.241**	.171**	-.059*	.021	.221**	.122**	.217**	.000	.000	.000	.000
	.000	.000	.050	.47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18	.024	.092								
	.550	.421									

〈표 4-17〉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 (Inter-Construct Correlations) (경제활동인-남성)

연령	교육 년수	자녀수	돌봄 시간	가사 시간	경제 활동	교육 만족도	사회적 관계	건강 상태와 관리	생활안 전만족	문화 및 정보 획득역량	성역할 고정 관념	주관적 삶의질 행복
1												
교육년수	1											
자녀수	-.076*	1										
돌봄시간	.036		1									
가사시간	-.032	.062		1								
	.382	.087			1							
경제활동	.021	-.030	.339**									
	.560	.407	.000									
	-.047	.082*	.015	-.058	1							
	.188	.024	.631	.109								
	-.104**	-.040	.087*	-.012	.285**	1						
	.004	.267	.016	.741	.000							
교육만족도	.143**	.149**	.120**	.122**	.188**	.202**	1					
사회적관계	.000	.000	.001	.001	.000	.000		1				
건강상태와 관리	.193**	.188**	.032	.047	.254**	.149**	.359**		1			
생활안전 만족	.000	.000	.371	.195	.000	.000	.000					
문화및정보 획득역량	-.048	-.106**	.010	.017	-.037	-.140**	.022	.008	1			
성역할 고정관념	.187	.003	.776	.639	.301	.000	.545	.822			1	
주관적 삶의질행복	-.206**	-.140**	-.033	-.068	.370**	.308**	.237**	.287**	.062	1		
	.000	.000	.361	.061	.000	.000	.000	.000	.086			
	.107**	.118**	-.016	-.013	.052	.099**	.030	.066	-.053	.008	1	
	.003	.943	.651	.717	.152	.006	.407	.066	.141	.833		
	.021	.118**	-.013	-.082*	.586**	.257**	.213**	.342**	.028	.486**	.092*	1
	.568	.001	.722	.024	.000	.000	.000	.000	.434	.000	.011	

〈표 4-18〉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 (Inter-Construct Correlations) (경제활동인-여성)

연령	교육 년수	자녀수	돌봄 시간	가사 시간	경제 활동	교육 만족도	사회적 관계	건강 상태와 관리	생활안 전만족	문화 및 정보 획득역량	성역할 고정 관념	주관적 삶의질 행복
1												
교육년수	1											
자녀수	-.276**	1										
돌봄시간	.000	.208**	1									
가사시간	.111	.000	.301**	1								
경제활동	.348**	.434**	.000	.000	1							
	-.136**	-.076*	-.027	-.076*	.033							
	.000	.033	.454	.033	.226**	1						
교육만족도	-.076*	-.026	.062	-.035	.050	.170**						
	.033	.461	.081	.324	.000	.000	1					
사회적관계	.188**	.167**	.090*	.133**	.050	.170**	.170**					
	.000	.000	.012	.000	.161	.000	.000	1				
건강상태와 관리	.194**	.138**	-.001	.082*	.106**	.060	.321**	.195**				
	.000	.000	.972	.021	.003	.094	.000	.000	1			
생활안전 만족	.109**	.124**	.085*	.044	-.017	-.003	.046	.038	.102**			
	.002	.000	.017	.213	.625	.936	.193	.283	.004			
문화및정보 획득역량	-.240**	-.190**	-.022	-.089*	.294**	.271**	.165**	.195**	.004	1		
	.000	.000	.542	.012	.000	.000	.000	.000	.004	.000		
성역할 고정관념	.258**	.204**	-.087*	.144**	.069	-.080*	.072*	.048	.102**	-.026	1	
	.000	.000	.014	.000	.054	.024	.042	.181	.004	.472	.117**	1
주관적 삶의질행복	-.017	.154**	-.034	.043	.439**	.199**	.083*	.212**	.042	.451**	.117**	.117**
	.632	.000	.345	.230	.000	.000	.020	.000	.237	.000	.001	.001

일하지 않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응답자의 주관적 삶의 질·행복과 5% 수준 이상($p < 0.05$, $p < 0.01$, $p < 0.001$)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인은 교육년수와 자녀수, 교육에 대한 만족감, 사회관계 형성을 위한 활동, 건강상태와 관리, 여가 및 정보활용 역량과 성역할 고정관념이었다. 모두 주관적 삶의 질 및 행복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교육년수가 길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건강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있을수록 그리고 사회적 활동에 대한 만족감이 증가할수록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

흥미로운 요인은 성평등 가치관을 짐작할 수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녀 모두 연령과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 즉 연령이 증가하면 성역할 고정관념도 강해진다. 남성의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인은 자녀수였다.

10% 수준($p < 0.1$)에서는 생활안전에 대한 만족감이 행복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전체 응답자의 5% 수준 이상에서 같은 관계 유형을 보였다. 그러나 10% 수준에서는 가사시간 요인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남성에게 있어 가사시간의 증가는 주관적 삶의 질 및 행복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교육년수와 가사시간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성은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돌봄과 가사시간이 늘어나지만, 남성은 돌봄시간만 늘어날 뿐 가사시간의 변화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여성은 5% 수준 이상에서 행복과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이 6개로 줄어들었다. 다른 요인들은 남성과 같았으나, 자녀수 요인이 사라졌다. 10% 수준에서 여성의 행복과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은 남성과 달리 돌봄시간과 안전이었으며,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관계수를 통해 가장 행복과 상관관계가 강한 요인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문화 및 정보획득 역량 요인이 행복과 가장 강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남성과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행복과 다른 요인들이 얼마나 강한 상관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봤을 때, 일하는 남성의 행복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요인이 여성보다 더 많았다.

5% 수준 이상에서, 일하는 남성의 행복은 교육년수, 자녀수, 가사시간, 경제활동과 교육활동에 대한 만족감, 사회활동과 관계, 건강, 여가와 정보획득역량 그리고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계있었다. 가사시간만이 유일하게 일하는 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 및 행복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5% 수준 이상에서, 일하는 여성의 행복은 남성과 달리 자녀수와 가사시간과 상관성이 없었다.

일하는 남성에게 있어 행복과 가장 강한 상관성이 있는 요인은 경제활동에 대한 만족감이었으나, 여성은 근소한 차이로 여가 및 정보획득역량에 대한 만족감이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다중회귀분석

‘주관적 삶의 질·행복’ 요인을 종속변수로 보고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설명력 있는 여러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했다.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다중회귀분석은 3단계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공차한계는 모두 0.2 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Durbin-Watson은 1.936로 기준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의 모델 3은 종속변수인 주관적 삶의 질·행복의 변량을 31.2% 설명한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추가된 모델 3의 설명력은 R^2 를 근거로 판단했을 때 다소 상승했다(0.8%). 인구사회학적 변인들과 돌봄 및 가사 시간이 포함된 모델 1과 사회생활 역량과 상태에 대한 만족감 요인이 포함된 모델 2의 설명력은 크게 상승했다

($R^2=.108$ 에서 $R^2=.312$ 로 상승). 소득이나 교육년수, 고용형태도 행복의 변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건강상태와 건강관리, 여가 활동과 정보 활용 능력 등 생활에 대한 주관적 판단과 만족감이 ‘주관적 삶의 질 및 행복’을 설명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성역할 태도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 즉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행복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모델 1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주관적 삶의 질 혹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 결과라 했을 때, 교육년수가 길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하며, 정규상근직 집단 대비 비정규직 집단의 삶의 질과 행복감은 떨어진다. 소득 200~300만원 기준으로 그 이하 집단은 소득이 낮아 행복감이 떨어지고, 300만원 이상인 집단부터는 소득으로 인해 행복감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모델 1에서 돌봄시간과 가사시간은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의 표준화계수(β)를 근거로 영향력을 예측해보면, 소득(월평균 소득 200~300만원 사이 집단 대비 500만원 이상 집단)이 주관적 삶의 질과 행복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모델 3에서 더 많은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성별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여성이면 행복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고, (10% 수준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불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배우자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대비, 1인 가구나 기타가구는 행복감이 떨어지며, (10% 수준에서) 부모동거가구도 그리 행복하지 않다.

성역할 고정관념 역시 강해질수록 행복감도 같이 커질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생활안전 만족감을 비롯해 교육이나 건강, 문화와 정보 활용 역량 등에서의 만족감은 모두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모델 3의 표준화계수(β)를 근거로 영향력을 예측해보면, ‘문화 향유와 정보획득 역량에 대한 만족감’이 행복에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로 구분하여 주관적 삶의 질·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설명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21〉 다중회귀분석(여성)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β	t	p	공차 한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β	t	p	공차 한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β	t	p	공차 한계						
	B	SE					B	SE					B	SE					B	SE				
(상수)	3.263	.187		17.433	.000		2.060	.188		10.950	.000		1.769	.198		8.944	.000							
연령	.000	.002	.002	.031	.975	.334	.000	.002	.006	.136	.892	.313	.000	.002	-.007	-1.143	.886	.307						
교육년수	.022	.009	.084	2.440	.015	.682	-.005	.008	-.021	-.649	.517	.647	.000	.008	-.001	-.026	.979	.633						
자녀수	-.012	.029	-.019	-.405	.685	.350	-.017	.026	-.028	-.647	.518	.349	-.017	.026	-.028	-.663	.507	.349						
1인가구	-.087	.091	-.036	-.956	.339	.553	-.164	.082	-.068	-.1987	.047	.550	-.161	.082	-.067	-1.970	.049	.550						
배우자동거	.105	.061	.059	1.711	.087	.668	.071	.056	.040	1.269	.205	.664	.060	.055	.034	1.091	.276	.662						
부모동거	-.127	.079	-.078	-1.602	.110	.337	-.147	.072	-.090	-2.049	.041	.336	-.136	.072	-.084	-1.907	.057	.334						
기타가구	-.460	.090	-.154	-5.104	.000	.877	-.408	.082	-.137	-5.003	.000	.875	-.381	.081	-.128	-4.692	.000	.868						
비정규	-.166	.054	-.096	-3.093	.002	.838	-.146	.049	-.084	-3.001	.003	.832	-.143	.048	-.082	-2.948	.003	.829						
파트타임	-.134	.077	-.052	-1.742	.082	.904	-.100	.069	-.039	-1.442	.150	.902	-.094	.069	-.037	-1.367	.172	.900						
일하지않음	.041	.045	.030	.910	.363	.731	-.026	.041	-.019	-.638	.524	.721	-.041	.040	-.030	-1.005	.315	.716						
100만원이하	-.278	.101	-.091	-2.768	.006	.748	-.236	.091	-.077	-2.593	.010	.747	-.211	.091	-.069	-2.331	.020	.741						
100-200만원	-.175	.061	-.103	-2.860	.004	.613	-.122	.056	-.072	-2.190	.029	.610	-.100	.055	-.059	-1.806	.071	.605						
300-400만원	.084	.057	.056	1.474	.141	.553	.026	.052	.017	.495	.620	.550	.022	.051	.015	.434	.665	.549						
400-500만원	.125	.057	.088	2.202	.028	.505	.051	.052	.036	.990	.322	.499	.041	.051	.029	.797	.425	.497						
500만원이상	.110	.063	.065	1.733	.083	.577	.056	.057	.033	.975	.330	.574	.069	.057	.040	1.201	.230	.572						
돌봄시간	.006	.010	.021	.615	.539	.689	.006	.009	.019	.620	.535	.679	.007	.009	.025	.819	.413	.675						
가사시간	-.010	.015	-.024	-.671	.502	.625	-.009	.013	-.021	-.645	.519	.622	-.009	.013	-.020	-.635	.526	.622						
교육만족도							.072	.021	.092	3.368	.001	.874	.076	.022	.097	3.545	.000	.853						
건강상태와관리							.089	.021	.116	4.152	.000	.837	.092	.022	.119	4.139	.000	.776						
생활안전만족							.024	.017	.038	1.437	.151	.954	.016	.017	.025	.975	.330	.943						
문화및정보획득역량							.322	.027	.354	12.105	.000	.764	.321	.027	.354	12.068	.000	.749						
사회적관계													-.002	.021	-.003	-.092	.927	.791						
성역할고정관념													.097	.022	.122	4.461	.000	.854						
통계량	R2=.116, 수정된R2=.102, F=8.529, p=.000																R2=.280, 수정된R2=.266, F=20.389, p=.000				R2=.293, 수정된R2=.278, F=19.785, p=.000, Durbin-Watson=1.971			

여성과 남성 다중회귀분석 모델은 3단계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공차한계는 모두 0.2 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고, Durbin-Watson도 기준값인 2에 근접(남성 1.903; 여성 1.971)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R^2 를 근거로 판단했을 때, 여성과 남성 모두 위계가 진행될수록 주관적 삶의 질·행복 변량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 모두 모델 1에서 2로 위계가 변할 때, 독립변인들의 행복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크게 상승했다.

모델 1에서 남성의 경우 연령은 행복에 부(-)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들수록 불행하게 느낀다. ‘자녀수’는 5% 유의수준에서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게 있어서 자녀와 배우자는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배우자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형태 대비 배우자 동거 가구가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인다. 여성에게 있어 연령이나 자녀는 행복에 별 의미가 없었다. 배우자도 10% 수준에서 여성에게 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그 의미가 약하다 할 수 있다.

남성이나 여성 모두 노동형태는 주관적 삶의 질과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상근직 대비 비정규직일 때 덜 행복하고(남성 $\beta = -.110$, 여성 $\beta = -.096$), 여성은 10% 수준에서 파트타임을 때 정규상근직 대비 덜 행복하다($\beta = -.052$).

소득은 모델 1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주관적 삶의 질과 행복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이 드러났다. 5%와 10% 수준에서 월평균 가구소득은 행복에 부정적(200만원 이하), 긍정적(300만원 이상) 영향을 미쳤다. 특히 남성은 표준화계수로 판단했을 때 소득 200~300만원 대비 500만원 이상인 점이 행복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beta = .198$)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소득 보다 가구형태(배우자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대비 기타가구)였다. 모델 3에서 나타나듯이, 소득은 여성에게 200~300만원(기준 소득)도 안 되는 소득만 아니라면 별 영향력이 없는 반면, 남성에게 소득은 높아질수록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돌봄과 가사 시간은 모든 모델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과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성 모델 3을 보면,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과 행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남성에 비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녀 모두 기타가구일 때 행복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여성과 달리 남성에게는 여전히 자녀수와 배우자와의 동거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1인 가구인 점이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의 표준화계수(β)를 근거로 변인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을 때, 여성과 남성 모두 ‘문화 및 정보획득 영량에 대한 만족감(남성 $\beta = .389$; 여성 $\beta = .354$)’ 이 가장 설명력이 강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건강 상태 및 관리’는 주관적 삶의 질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환경 주변의 안전성에 대한 만족감은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남성에게는 10%수준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여성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다.

성평등 의식을 엿볼 수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성과 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 모두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더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주관적 삶의 질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모든 여성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가정과, 경제활동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참고하여 전체 응답자 중 현재 일하는 사람들만을 추출해 다중회기분석을 시행했다.

〈표 4-23〉 다중회귀분석(경제활동인-여성)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β	t	p	공차 한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β	t	p	공차 한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β	t	p	공차 한계						
	B	SE					B	SE					B	SE					B	SE				
(상수)	3.033	.225		13.452	.000		1.097	.229		4.799	.000		.972	.235		4.127	.000							
연령	.000	.003	-.007	-1.133	.894	.386	.002	.003	.036	.762	.446	.370	.002	.003	.034	.718	.473	.364						
교육년수	.040	.011	.145	3.716	.000	.743	.014	.009	.051	1.490	.137	.707	.017	.009	.062	1.805	.072	.694						
자녀수	-.014	.037	-.023	-.379	.705	.302	-.006	.032	-.010	-.181	.856	.301	-.003	.032	-.005	-.098	.922	.298						
가구 유형	1인가구	-.019	.108	-.008	-.176	.860	-.102	.092	-.045	-.1106	.269	.491	-.096	.092	-.043	-.1038	.300	.489						
	배우자동거	.069	.077	.035	.902	.367	.041	.066	.020	.616	.538	.768	.041	.066	.020	.624	.533	.766						
	부모동거	-.148	.091	-.090	-1.631	.103	.371	-.121	.078	-1.544	.123	.367	-.110	.078	-.067	-1.408	.160	.365						
	기타가구	-.429	.097	-.161	-4.414	.000	.853	-.351	.083	-1.132	.000	.846	-.334	.084	-.125	-3.990	.000	.839						
경제 활동 상태	비정규	-.175	.054	-.117	-3.254	.001	.871	-.052	.048	-1.083	.279	.810	-.048	.048	-.032	-1.002	.317	.807						
	파트타임	-.136	.076	-.063	-1.779	.076	.906	.028	.067	.415	.679	.857	.024	.067	.011	.360	.719	.855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이하	-.074	.120	-.024	-0.616	.538	.758	-.026	.103	-0.008	.801	.756	-.006	.103	-.002	-.059	.953	.751						
	100-200만원	-.213	.073	-.132	-2.907	.004	.552	-.099	.063	-1.563	.119	.541	-.087	.063	-.054	-1.370	.171	.535						
	300-400만원	-.015	.072	-.010	-.204	.838	.516	-.032	.062	-.021	-.527	.598	-.033	.061	-.022	-.545	.586	.513						
	400-500만원	.090	.070	.065	1.290	.198	.442	.007	.060	.005	.121	.904	.433	.001	.060	.001	.012	.990	.431					
	500만원이상	.099	.074	.062	1.329	.184	.519	.006	.064	.004	.091	.928	.514	.015	.064	.010	.240	.810	.510					
돌봄시간	-.026	.014	-.073	-1.833	.067	.709	-.022	.012	-.062	-1.810	.071	.701	-.019	.012	-.055	-1.609	.108	.696						
가사시간	.028	.018	.063	1.552	.121	.690	.030	.015	.069	1.982	.048	.688	.030	.015	.069	1.971	.049	.683						
경제활동							.256	.029	.295	8.869	.000	.750	.250	.029	.289	8.663	.000	.743						
교육만족도							.029	.023	.038	1.239	.216	.872	.036	.023	.048	1.545	.123	.853						
건강상태와관리							.066	.024	.086	2.792	.005	.883	.075	.024	.097	3.074	.002	.827						
생활안진만족							.033	.019	.051	1.734	.083	.961	.030	.019	.046	1.571	.116	.954						
문화및정보획득역량							.294	.030	.325	9.749	.000	.746	.298	.030	.329	9.806	.000	.733						
사회적관계													-.034	.025	-.045	-1.385	.166	.794						
성역할고정관념													.049	.025	.062	1.983	.048	.850						
통계량	R2=.128, 수정된R2=.110, F=7.095, p=.000																R2=.365, 수정된R2=.348, F=20.954, p=.000				R2=.370, 수정된R2=.351, F=19.460, p=.000, Durbin-Watson=2.131			

모델 1에서 모든 여성과 일하는 여성 간 차이가 나타난 점은 돌봄시간이었다. 10%수준이지만, 일하는 여성들의 행복에 돌봄시간은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남성에게 돌봄과 가사시간이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일하는 여성에게 돌봄시간의 증가는 행복감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일하는 여성에게 있어서 ‘가사시간’이 주는 의미다. 모델 3에서 가사시간은 일하는 여성의 행복에 5%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돌봄시간의 영향력 방향이 부(-)인 점을 생각하면, 가사노동이 어떤 것이기에 일하는 여성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인지 돌봄과 가사를 분리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 가능하다. 첫째, 임금 노동 시간과 가사 시간과의 관계다. 임금 노동 시간이 적절해(정시 퇴근) 가사 시간을 확보하여 가정 내 삶의 질을 만족스럽게 유지할 수 있는 여성들의 행복감이 드러난 결과일 수 있다. 둘째, 전통적인 ‘가사노동’이 기술의 발달로 기계에 의존하게 되면서, 청소나 빨래가 아니라, 집을 가꾸거나 맛있는 요리를 해먹거나, 동식물 돌보기 등 취미 활동이라 생각하는 점이 강해지지 않았나 하는 추정이 가능하다. 앞서 상관관계 분석에서 일하는 남성에게 가사시간의 증가가 행복과 부(-)적 상관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여성에게 있어서 가사노동이란 무엇인지 다른 해석을 통해 지원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규상근직 대비 비정규직은 남성과 여성 모두 주관적 삶의 질과 행복감이 떨어진다. 여성은 특히 파트타임도 10% 수준에서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역시 남성에게 있어 중요한 행복 결정 요인이었다. 모델 1에서 남성의 행복을 가장 강하게 설명해주는 예측변수는 ‘(소득 200~300만원 대비) 500만원 이상, $\beta=.184$ 이다. 일하는 여성은 기준소득집단인 200~300만원 집단 보다 한 단계 낮은 100~200만원 집단이 불행한 점 외에는 소득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모델 3에서 성역할 고정관념 변인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면 삶에도 더 만족하고 행복할 것이

라는 예측은 일하는 여성에게 5% 수준에서 유의미했다. 이러한 결과는 성평등한 태도와 여성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에 대한 몇몇 연구에서 제기된 바와 무관하지 않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지향하는 여성이 많아졌고, 여전히 전통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남성(남편)과의 갈등이 결혼생활 만족감 또는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은 다양한 결론을 도출했다. 특히, 여성의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인 경우,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높거나 행복감을 느끼는 여성의 경우 전통적인 가치관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는 흥미롭다.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아내와 평등한 태도를 가진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연구(윤경자, 1997), 남편의 가사분담은 평등한 성역할 태도와 관련이 있는데, 남편의 가사분담을 만족해하면서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는 맞벌이 여성(유계숙, 2010), 결혼행복감이 높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이며 이는 일과 가정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연구(이진숙, 2011) 등은 성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여성이 취하게 되는 순응적 태도(forced compliance)가 심리적 안정(행복감)을 이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본 연구 결과에도 나타난 여성의 성평등 가치관과 행복 간 관계는 위 선행연구들처럼 여전히 여성이 가부장적 사회에 살면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치관)에 순응 혹은 “자기정당화전략(Aronson et. al., 2002)”을 구사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가진다는 심리학적 의미를 시사한다.

제 5 장

성평등 지표 개발에 주는 함의

제1절 조사결과의 정책 시사점

제2절 지역 성평등 지표 보완 과제

제5장 성평등 지표 개발에 주는 함의

제1절 조사결과의 정책 시사점

“당신은 지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란 단일 질문으로 여성이 자신의 삶의 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은 여성이 행복한지에 대한 적절한 답을 얻을 수 없다.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지적 판단 요인들의 영향력을 측정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떠한 요인들을 개선해 여성들의 인지적 판단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조사 결과는 대전광역시 여성정책 혹은 성평등한 대전을 만들기 위한 성평등 정책 추진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지닌다.

〈표 5-1〉 조사결과의 정책 시사점

기존 성평등 지수 지표 체계에 의한 구분	내 용
행복, 주관적 삶에 질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과 남성의 행복은 그 정도의 차이를 단순 비교할 수 없음. • 기초자치구 간 행복감에 따른 동서격차가 있음. • 비정규직의 주관적 삶의 질과 행복감이 정규상근직과 뚜렷하게 차이남. • 여성에게 있어 연령(나이듦)은 행복의 증가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남성은 나이 들수록 행복감이 감소할 수 있음.
경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은 남성보다 일자리가 덜 안정적이라 생각하고 있음. • 경제활동(안정성, 소득, 일에 대한 만족감, 승진 등) 전반에 대한 개인의 만족감은 삶의 질·행복에 강한 영향을 미침. • 여성이 (남성수준만큼) 행복하려면, 경제활동(안정성, 소득, 일에 대한 만족감, 승진 등)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도록 지

기존 성평등 지수 지표 체계에 의한 구 분	내 용
	<p>원해야 함.</p> <p>✓ 특히, 여성의 관리자급 승진을 위한 지원이 요구됨.</p>
의사결정과 사회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은 남성보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는 주관적 삶의 질·행복과 상관관계가 있음. • 남성에게도 지역 자원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는 일은 주관적 삶의 질·행복과 상관관계가 있음. ✓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유도 및 활동 기회 다각화 노력이 요구됨.
교육·직업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활동정도가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행복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임. • 평생교육이나 진학에 대한 열망이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남. ✓ 교육지원정책의 다각화와 심화를 모색해야 함.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1인가구는 남성과 달리 1인 가구라는 점이 주관적 삶의 질·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줌. ✓ 1인 가구 증가추세를 감안해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요구 파악이 필요한 시점임.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태와 활동정도는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임. • 여성은 남성보다 더 우울하며, 건강유지를 위한 활동정도도 남성보다 낮음. ✓ 검진비율 등도 중요하지만 우울감 등 정서적 건강의 성별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이 요구됨.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환경에서 느껴지는 안전은 성별격차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행복과는 약한 상관관계를 보임. ✓ 성평등 정책이나 여성친화도시 정책 사업들이 안전사업에 치우치지 않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의 경우에서만 배우자 및 자녀수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가부장적 가치관에 근거한 가족생활이 남성의 행복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함. • 가사노동시간의 증가는 일하는 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기존 성평등 지수 지표 체계에 의한 구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노동시간의 증가는 일하는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돌봄시간의 증가는 일하는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돌봄과 가사를 정책적으로 분리해 이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가사노동에 대한 성별 인식 차이를 좁히는 지원이 필요함.
문화 및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생활·여가에 대한 만족은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임. • 공공정보 등 각종 정보획득역량은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임. ✓ 여가 및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성역할 가치관 (성평등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여성의 행복 증가에 기여하고 있음. • 여성들의 가부장적 가치관에 대한 순응 혹은 자기정당화 전략을 통한 심리적 안정 추구를 시사하며 추후 연계 연구가 필요함.

제2절 지역 성평등 지표 보완 과제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여성가족부가 발표해 온 ‘지역 성평등 수준 측정 지표’ 를 다음과 같이 보완해 제안하고자 한다. 영역별 보완 사항은 차년도 ‘제3차 성평등 지표 개발 연구’ 과정에서 지역 전문가들과의 단계별 수렴 절차를 거쳐 계량지표와의 통합 및 활용 방안 최종안을 도출하는 데 선행 결과로 제안될 예정이다.

<표 5-2>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지표에 대한 보완

정책 영역	분야	계량적 지표	보완 지표 (주관적 지표 포함)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참가율 • 성별 임금 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안정성에 대한 견해

정책 영역	분 야	계량적 지표	보완 지표 (주관적 지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근로자 비율 	
	의사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 및 기초의원 성비 •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 관리직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
	교육·직업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교육년수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도와 만족도

경제활동과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영향력 발휘와 관련한 ‘성평등한 사회 참여 영역’의 지표 중 일과 관련해서 여성과 남성의 주관적 견해가 크게 다른 부분은 ‘일자리 안정성’이었다. 고용 안정성에 대하여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데, 이 불안감의 추이를 경제활동참가율 및 상용근로자 비율과 연계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승진에 대한 기대감이 현저히 떨어졌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영향력 발휘에 대한 자기 평가도 낮게 나타났다. 현재 지역 성평등 지수는 여성 관리직의 비율이나 고급 공무원의 여성 비율을 꾸준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영향력 발휘 부문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미 여성이 많이 진출해 있는 분야-여성이나 복지 분야 외 도시 개발이나 교통 등 주요 정책 아젠다를 결정하는 분야에 여성들이 얼마나 진출해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4년제 대학 진학률에 있어 성별 격차가 거의 없고, 여성의 교육년수가 성평등 현황을 측정하기에 무의미해지고 있는 현재 교육 분야 지표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은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본 조사에서 여성들의 배움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남성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이후 혹은 평생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지표 체계 보완을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표 5-3> 인권·복지 영역 지표에 대한 보완

정책 영역	분 야	지 표	보완 지표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공적연금 가입자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관계 형성 현황(네트워크) 분석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울감 다양한 건강유지 활동 비용 및 시간 분석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 정책 체감 현황 혹은 만족도

위기 시 ‘의지할 수 있는 지인’은 여성과 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 및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은 여성보다 남성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일지 모르지만 사회적 관계를 통한 행복 추구에 있어서는 부족한 남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대전시 사회조사’ 시 네트워크 형성 현황에 대한 조사 항목을 추가해 성별에 따른 사회적 관계 형성 정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개별 문항 상관관계 분석에 따르면, 우울감은 행복과 대척점에 있다고 할 만큼 강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많고 측정 시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여성의 삶의 질 혹은 성평등한 사회와 개인적 우울감의 관계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학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보건 정책이 몸의 건강 뿐 아닌 마음의 건강, 스트레스 등과 연계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실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건강을 위한 행위들은 삶의 질 및 행복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행복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게 나타났다. 물론 건강관련 삶의 질이 꾸준히 측정되고 있으나, 구체적 행위는 소득과 관련 깊고, 어떠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비용)도 성별로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적 안전 상황 혹은 범죄 피해에 대한

강한 불안감을 나타냈다. 강한 불안에 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구체적인 정책, 정보 제공 서비스 체감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 불안감 자체가 행복감 증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이는 최근 여성의 삶의 질 향상 혹은 성평등 정책의 일환으로 자주 제기되는 안전 정책이 과연 여성의 행복감이나 성평등 향상에 기여하는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근거를 제공한다. 여성 정책이 곧 안전 정책인 것처럼 많은 정책적 관심이 안전에 몰리는 경향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표 5-4>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 지표에 대한 보완

정책 영역	분 야	지 표	보완 지표
성평등 의식·문화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노동시간 •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 가족관계 만족도 • 육아휴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시간과 가사 시간의 분리 측정 • 가족 간 교류 시간 및 방법 측정
	문화 및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시간 • 여가시간 만족도 • 인터넷 이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 및 문화 활동 비용 • 정보 접근 정도 측정 • 정보접근 체감도(만족도)

본 조사에서 가족관계만족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가족과의 교류 시간 만족감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가족과의 교류는 주관적 삶의 질 및 행복과 강한 연관이 있고, 행복감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만족감의 성별 격차 보다는 구체적인 교류 시간과 방법에 대한 측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가사와 돌봄 시간이 남성에 비해 상당히 긴 것은 이번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그러나, 이를 통합해 측정하고 성평등 현황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남성에게는 가사와 돌봄이 행복감에 부정적이었지만, 여성에게는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수가 여성의 행복감과 무관했다는 결과는 돌봄이 여성에게 가사보다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임을 시사한다.

문화 및 여가활동은 행복감과 큰 상관관계가 있고 행복감 상승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기존 지역 성평등 지수 지표에도 ‘여가 시간’ 과 ‘여가 시간 만족도’ 를 측정하여 여성의 삶의 질을 추정하고 있으나, 실질적 비용은 측정하지 않고 있다. 여성 집단 내에서 소득에 따라 여가 및 문화 향유 활동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비용을 측정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 취득과 활용 역량은 행복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정보 취득과 활용 지표가 인터넷 이용률만으로 측정되기엔 부족함이 있다. 정보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그 정보를 취득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지, 즉 정보 취득과 활용에 대한 체감 정도 혹은 만족감 측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지표는 앞으로 다양화될 필요가 있는 지표로, 대전시 사회조사 등 매년 실시되는 조사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강성진. 2010. “한국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경제학연구』 58(1): 5-36.
- 강현아·최지훈. 2013. 『광주형 여성행복지표 개발 및 측정』. (재)광주여성재단.
- 구교준·임재영·최슬기. 2014. “소득과 삶의 역량에 따른 행복 결정 요인 연구.” 『한국행정학보』 48(2): 317-339.
- 김명소·김혜원·한영석·임지영. 2003.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1-33.
- 김미곤·여유진·김성아·김진희·최민정. 2015. 『2015년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및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상곤·김성중. 2008. “지역주민의 행복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안산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5: 325-351.
- 김승권·장영식·조홍식·차명숙. 2008.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운태. 2010. “행복지수와 사회문화적 분석.” 『문화경제연구』 13(1): 23-45.
- 김진욱. 2000. “서울과 OECD 국가의 도시간 삶의 질 비교.” 『서울도시연구』 1(1): 3-18.
- 김창연·조영미·이혜경·박진경. 2012. 『2012 서울여성행복지표 개발 및 측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류지아. 2016. “소득이 많을수록 더 행복할까: 행복에 대한 소득효과의 포화점 존재에 관한 분석.” 『한국인구학』 39(2): 71-95.
- 박성복. 2003. “삶의 질 개념과 비교방법.”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3): 52-74.
- 변미리·최정원·박민진·이혁준. 2015. 『메가시티 삶의 질과 서울형 행복지표』. 서울연구원.
- 양지훈. 2012. “가족공유활동이 부부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가정복지학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유계숙. 2010. “맞벌이부부의 가사분담이 부인의 일·가족 전이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여성연구』 49(1): 41-69.
- 윤경자. 1997.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15(4): 221-235.
- 이경태·권영주. 2010.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경기도민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7(1): 97-132.
- 이주일·유 경. 2010. “직장·가정 갈등의 세대차이와 직장·가정 갈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직장여성의 경우.”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3(3): 471-501.
- 이준한. 2013. “인천여성행복의 특성과 요인에 관한 분석.” 『인천학연구』 19: 121-152.
- 이지은·강민성·이승중. 2014. “도시위험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서울기 주민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2): 559-588.
- 이진숙. 2011. “기혼 직장여성의 일-가족양립갈등 경로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50(1): 169-198.
- 임준홍·홍성효. 2014. “주거환경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충남지역을 사례로.” 『주거환경』 12(2): 137-152.
- 임현진·이재열·박광민·설동훈. 1997. “신체적·심리적 안전과 삶의 질0경험적 분석.” 『한국인구학』 20(1): 161-199.
- 정선기. 2007. 『2007 대전시민의 삶의 질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 정은의·노안영. 2007. “사회경제적 요인과 기혼여성 행복간 관계-개별성·관계성의 조절 효과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1): 59-82.
- 조성호·신원득·김홍식·허재완·윤태웅. 2009. 『경기도민의 삶의 질 평가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주은선. 2016. “노동시간이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7): 750-759.
- 주재선·김원홍·김난주·손현민. 2015. 『2015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주혜진. 2015. 『대전시 성평등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I - 지표 영역 선정』. 대전발전연구원.
- 최말옥. “남성과 여성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비교-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7(2): 19-40.
- 최 열·이성호·김지현. 2001. “대도시 삶의 질 시계열적 추이 및 비교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17(7): 171-178.
- 한 준·김석호·하상웅·신인철. 2014. “사회적 관계의 양면성과 삶의 만족.” 『한국사회학』 48(5): 1-24.
- 한 준. 2015. “한국인 삶의 질의 사회적 결정요인.” 『국정관리연구』 10(2): 67-94.
- 홍찬숙. 2009. “여성의 행복과 성찰성, 정의감각-비판적 행복연구 방법론을 위한 제안.” 『한국여성학』 25(2): 99-128.

슐트, 브리짓(Schulte, Brigid). 2015. 『타임 푸어』 안진이 옮김. 더퀘스트.

Aronson, Elliot, Timothy D. Wilson, and Robin M. Akert (eds.). 2002. Social Psychology. NJ: Prentice Hall.

Laura de Bonfils et al. 2013. 『Gender Equality Index Report』.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부 록



.....

부록 1. 설문지

부록 2. 조사결과표

.....

부록 1. 설문지

ID				
----	--	--	--	--

양성평등 확산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길리서치에서 대전발전연구원과 함께 양성평등 확산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33조와 34조에 의거하여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04.

주) 한길리서치 센타

○ 담당 연구원 : 류 혜운 (02-780-0016)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현황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현황에 맞게 작성해 주십시오.

1. 먼저 개인 생활 영역에 대한 인식조사입니다.

1. 다음은 귀하의 생활 전반에 대한 문항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V'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9 해당 없음
1) 내 일자리는 안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99
2) 나는 내 수입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99
3) 나는 현재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99
4) 나는 최근 이직을 고려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9
5) 나는 직장, 모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내 의견은 잘 반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9
6) 내가 노력하면 현재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9
7) 나는 국가 및 지역,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투표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99
8) 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모임(종교, 동호회, 자원봉사 등)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99
9) 나는 더 배우고 싶다(고등교육기관 진학, 학위취득, 평생교육 등)	①	②	③	④	⑤	99
10) 나는 원하는 만큼 교육을 받았다(초,중,고, 대학교)	①	②	③	④	⑤	99
11) 내가 원하는 직업훈련(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건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99
12) 나는 최근 참여한 교육프로그램(직무관련, 자기개발 등)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99
13) 나는 사고나 질병 혹은 경제적 위기에 대응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9
14) 나는 외롭거나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와 친척, 이웃 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9

항 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9 해당 없음
15) 나는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에 자주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99
16) 나는 동네일이나 지역사회(대전시) 일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99
17) 나는 자주 우울하다	①	②	③	④	⑤	99
18) 나는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동이나 검진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9
19) 나는 건강 유지를 위해 일정 비용을 지출한다 (유기농,건강식품,운동 등)	①	②	③	④	⑤	99
20) 나는 일상생활을 혼자 불편 없이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9
21) 나는 인적이 뜸한 시간(장소)에 돌아다니는 것이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99
22) 나는 범죄의 피해자가 될까봐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99
23) 나 또는 주변사람이 성범죄(희롱,추행, 폭력 등) 피해를 경험한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99
24) 나는 위험(재해, 범죄 등)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9
25) 나는 살고 있는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해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99
26) 나는 하루에 보통 _____시간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등)을 돌본다						
27) 나는 하루에 보통 _____시간 집안일을 한다						
28) 나는 현재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99

항 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9 해당 없음
29) 나는 가족들과 대화 및 교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9
30) 나는 여가 및 문화 향유를 하고 있다(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①	②	③	④	⑤	99
31) 나는 필요한 공공 정보(복지서비스 정보 등) 를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9
32) 나는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9
33) 나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남성을 먼저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9
34) 나는 조직의 책임자나 리더는 남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9
35) 나는 맞벌이라도 가사와 양육의 주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9
36) 나는 현재 남녀 간 지위차이는 능력과 노력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9
37) 내 삶은 안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99
38)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99
39) 나는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99

응답자 (권장사항)	별칭(닉네임)	
	전화번호	() - () - ()

면접원	이름	
-----	----	--

♣ 본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이름(별칭)과 연락처는 조사 진행과정에 대한 확인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활용되지
않으며, 응답결과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부록 2. 부록표

〈표 2-1〉 기초자치구별 차이-전체

문항	(1) 동구	(2) 중구	(3) 서구	(4) 유성구	(5) 대덕구	F	Scheffe
1. 내 일자리는 안정적이다	3.32 (1.026)	3.26 (.985)	3.59 (.862)	3.43 (.845)	3.38 (1.003)	6.708 ***	1,2<3
2. 나는 내 수입에 만족한다	2.86 (.987)	2.94 (.930)	3.23 (.874)	3.13 (.803)	3.11 (.945)	8.942 ***	1<4,5 2<3
3. 나는 현재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한다	3.38 (.888)	3.56 (.828)	3.59 (.726)	3.58 (.739)	3.61 (.796)	3.472 **	1<3,4,5
4. 나는 최근 이직을 고려해본 적이 있다	2.76 (1.191)	2.67 (1.052)	2.63 (1.097)	2.58 (.994)	2.37 (1.072)	4.042 **	5<1,2
5. 나는 직장, 모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내 의견은 잘 반영되고 있다	3.37 (.818)	3.43 (.756)	3.48 (.753)	3.56 (.700)	3.27 (.754)	7.487 ***	5<3 1<4
6. 내가 노력하면 현재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다	2.71 (1.175)	2.74 (1.024)	3.03 (.946)	3.25 (.913)	2.93 (.998)	15.233 ***	1,2<3 5<4
7. 나는 국가 및 지역,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투표에 참여한다	3.96 (.923)	3.97 (.912)	3.82 (.825)	3.77 (.859)	3.82 (.780)	4.350 **	4<2
8. 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모임(종교, 동호회, 자원봉사 등)에 참여한다	2.66 (1.173)	2.95 (1.177)	3.29 (.947)	3.26 (.952)	2.88 (1.117)	25.270 ***	1<2 2,5<3,4
9. 나는 더 배우고 싶다(고등교육기관 진학, 학위취득, 평생교육 등)	3.34 (1.082)	3.31 (1.129)	3.33 (.968)	3.18 (.972)	2.93 (1.019)	8.517 ***	5<1,2,3,4
10. 나는 원하는 만큼 교육을 받았다(초, 중, 고, 대학교)	3.23 (.951)	3.18 (.916)	3.32 (.914)	3.38 (.867)	3.11 (.942)	5.064 ***	5<3,4

문항	(1) 동구	(2) 중구	(3) 서구	(4) 유성구	(5) 대덕구	F	Scheffe
11. 내가 원하는 직업훈련(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건이 된다	2.76 (.975)	2.88 (1.034)	3.13 (.898)	3.12 (.908)	2.91 (.970)	11.825 ***	1,2<4 5<3
12. 나는 최근 참여한 교육프로그램(직무관련, 자기개발 등)에 만족한다	2.80 (.829)	2.99 (.780)	3.17 (.762)	3.21 (.770)	2.96 (.911)	16.887 ***	1<2 5<3 2<4
13. 나는 사고나 질병 혹은 경제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3.15 (.898)	3.35 (.864)	3.30 (.788)	3.47 (.805)	3.46 (.786)	8.513 ***	1<2,4,5
14. 나는 외롭거나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와 친척, 이웃 등이 있다	3.71 (.815)	3.72 (.753)	3.74 (.709)	3.79 (.690)	3.92 (.604)	4.162 **	1,2,3<5
15. 나는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에 자주 참여한다	2.25 (.973)	2.35 (.946)	2.41 (.937)	2.27 (.855)	2.21 (.961)	3.218 *	
16. 나는 동네일이나 지역사회(대전시) 일에 관심이 많다	2.85 (.927)	2.89 (.943)	2.71 (.927)	2.58 (.934)	2.67 (1.006)	7.164 ***	4<1 5<2
17. 나는 자주 우울하다	2.36 (.965)	2.21 (.821)	2.05 (.879)	2.07 (.879)	2.09 (.820)	7.861 ***	3,4,5<1
18. 나는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동이나 걷기를 받고 있다	3.18 (1.115)	3.30 (.952)	3.14 (.859)	3.20 (.865)	3.07 (.943)	2.674 *	5<2
19. 나는 건강 유지를 위해 일정 비용을 지출한다 (유기농, 건강식품, 운동 등)	3.06 (.968)	3.23 (.902)	3.20 (.820)	3.18 (.792)	3.14 (.856)	2.075	
20. 나는 일상생활을 혼자 불편 없이 할 수 있다	4.21 (.823)	3.98 (.730)	3.94 (.792)	4.01 (.834)	3.88 (.813)	7.496 ***	2,3,4,5<1
21. 나는 인적이 뜸한 시간(장소)에 돌아다니는 것이 두렵다	3.01 (1.128)	2.83 (1.096)	2.87 (1.129)	2.96 (1.100)	2.96 (.978)	1.722	
22. 나는 범죄의 피해자가 될까봐 불안하다	2.85 (1.050)	2.64 (.999)	2.67 (1.083)	2.77 (1.071)	2.78 (1.023)	2.349	
23. 나 또는 주변사람이 성범죄(희롱, 추행, 폭력 등) 피해를 경험한 적 있다	1.88 (.960)	1.96 (.847)	2.01 (1.045)	1.99 (1.058)	1.81 (.862)	2.500 **	

문항	(1) 동구	(2) 중구	(3) 서구	(4) 유성구	(5) 대덕구	F	Scheffe
24. 나는 위험(재해, 범죄 등)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3.19 (.766)	3.14 (.789)	2.99 (.944)	2.90 (1.021)	3.01 (.763)	6.425 ****	4<1,2
25. 나는 살고 있는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해 불안하다	2.92 (.934)	2.71 (.840)	2.78 (.856)	2.69 (.837)	2.68 (.820)	4.215 *	2,4,5<1
26. 나는 하루에 보통 __시간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등)을 돌본다	1.29 (2.096)	1.29 (1.827)	1.00 (1.570)	1.10 (1.680)	1.16 (2.058)	2.154	
27. 나는 하루에 보통 __시간 집안일을 한다	1.75 (1.586)	1.55 (1.273)	1.70 (1.498)	1.71 (1.542)	1.55 (1.405)	1.337	
28. 나는 현재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3.85 (.818)	3.98 (.796)	3.90 (.699)	3.92 (.637)	3.83 (.699)	1.971	
29. 나는 가족들과 대화 및 교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3.26 (.819)	3.40 (.743)	3.60 (.709)	3.59 (.728)	3.41 (.745)	14.919 ****	1,2,5<3,4
30. 나는 여가 및 문화 향유를 하고 있다(문화행사, 공연, 강좌 등).	2.89 (.926)	3.05 (1.019)	3.29 (.793)	3.27 (.850)	2.97 (.799)	16.830 ****	1,2,5<3,4
31. 나는 필요한 공공 정보(복지서비스 정보 등)를 잘 알고 있다	2.95 (.946)	2.97 (.851)	3.30 (.814)	3.21 (.808)	2.95 (.727)	17.357 ****	1,2,5<3,4
32. 나는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3.38 (.879)	3.42 (.827)	3.58 (.769)	3.57 (.840)	3.34 (.823)	7.250 ****	1,5<3,4
33. 나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남성을 먼저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95 (1.009)	2.92 (.972)	3.08 (.957)	3.01 (.875)	2.88 (.888)	3.118 **	
34. 나는 조직의 책임자나 리더는 남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70 (.999)	2.76 (.987)	2.86 (.973)	2.87 (.919)	2.70 (.885)	2.975 **	
35. 나는 맞벌이라도 가사와 양육의 주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2.66 (1.056)	2.41 (.876)	2.69 (.933)	2.60 (1.056)	2.37 (.959)	7.844 ****	5<4 2<1,3
36. 나는 현재 남녀 간 지위차이는 능력과 노력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3.21 (.959)	3.00 (.929)	3.07 (.939)	3.06 (.885)	3.05 (.851)	2.149	
37. 내 삶은 안정적이다	3.21	3.19	3.48	3.53	3.38	18.790 ****	1,2<3,4,5

문항	(1) 동구	(2) 중구	(3) 서구	(4) 유성구	(5) 대덕구	F	Scheffe
38.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767) 3.28 (.786)	(.771) 3.35 (.779)	(.692) 3.57 (.672)	(.662) 3.58 (.688)	(.724) 3.46 (.684)	13.472 ****	1<5 2<3,4
39. 나는 행복하다	(.769) 3.42 (.769)	(.750) 3.49 (.750)	(.626) 3.65 (.626)	(.647) 3.66 (.647)	(.658) 3.57 (.658)	8.598 ****	1,2<3,4

〈표 2-2〉 연령대별 차이-전체

문항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F	Scheffe
1. 내 일자리는 안정적이다	3.35 (.979)	3.54 (.898)	3.48 (.923)	3.37 (.906)	3.25 (.992)	3.677 **	5<2
2. 나는 내 수입에 만족한다	2.98 (.907)	3.09 (.850)	3.17 (.896)	3.08 (.964)	2.99 (.887)	2.131	
3. 나는 현재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한다	3.52 (.842)	3.58 (.723)	3.59 (.784)	3.56 (.788)	3.42 (.828)	1.481	
4. 나는 최근 이직을 고려해본 적이 있다	2.93 (1.102)	2.71 (1.056)	2.54 (1.085)	2.52 (1.067)	2.31 (1.005)	9.634 ****	5<2 3,4<1
5. 나는 직장, 모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내 의견은 잘 반영되고 있다	3.42 (.742)	3.46 (.739)	3.48 (.759)	3.45 (.758)	3.42 (.798)	.453	
6. 내가 노력하면 현재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다	3.14 (.939)	3.22 (1.007)	3.02 (.977)	2.76 (1.021)	2.44 (.949)	22.275 ****	5<3,4 4<1,2
7. 나는 국가 및 지역,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투표에 참여한다	3.69 (.944)	3.80 (.869)	3.90 (.790)	3.93 (.834)	3.96 (.867)	6.250 ****	1<3,4,5
8. 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모임(종교, 동호회, 자원봉사 등)에 참여한다	2.88 (1.079)	3.00 (1.071)	3.21 (1.025)	3.17 (1.098)	3.12 (1.060)	6.484 ****	1<3,4

문항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F	Scheffe
9. 나는 더 배우고 싶다(고등교육기관 진학, 학위취득, 평생교육 등)	3.57 (.968)	3.33 (.987)	3.26 (.998)	3.05 (1.056)	2.92 (1.039)	20.993 ***	5<3 4<2 2,3<1
10. 나는 원하는 만큼 교육을 받았다(초, 중, 고, 대학교)	3.40 (.922)	3.47 (.836)	3.32 (.880)	3.11 (.954)	2.91 (.909)	20.605 ***	5,4<1,2,3
11. 내가 원하는 직업훈련(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건이 된다	3.13 (.920)	3.02 (.938)	3.00 (.921)	3.00 (1.035)	2.82 (.933)	4.077 **	5<1
12. 나는 최근 참여한 교육프로그램(직무관련, 자기개발 등)에 만족한다	3.08 (.744)	3.12 (.807)	3.11 (.807)	3.05 (.862)	2.89 (.805)	3.795 **	5<1,2,3
13. 나는 사고나 질병 혹은 경제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3.14 (.883)	3.45 (.754)	3.38 (.785)	3.40 (.868)	3.32 (.835)	8.089 ***	1<2,3,4
14. 나는 외롭거나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와 친척, 이웃 등이 있다	3.78 (.813)	3.79 (.686)	3.79 (.678)	3.73 (.721)	3.73 (.701)	.861	
15. 나는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에 자주 참여한다	2.15 (.906)	2.12 (.827)	2.41 (.898)	2.45 (.987)	2.46 (1.006)	13.100 ***	1,2<3,4,5
16. 나는 동네일이나 지역사회(대전시) 일에 관심이 많다	2.43 (.888)	2.61 (.893)	2.79 (.902)	2.84 (.979)	3.03 (1.018)	20.195 ***	1<3 2<4 3<5
17. 나는 자주 우울하다	2.10 (.950)	2.13 (.864)	2.12 (.858)	2.17 (.866)	2.14 (.888)	.320	
18. 나는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동이나 검진을 받고 있다	2.72 (.915)	3.01 (.868)	3.27 (.877)	3.42 (.920)	3.53 (.864)	46.994 ***	1<2<3,4 3<5
19. 나는 건강 유지를 위해 일정 비용을 지출한다 (유기농, 건강식품, 운동 등)	2.81 (.844)	3.14 (.809)	3.28 (.811)	3.29 (.884)	3.35 (.842)	24.397 ***	1<2,3,4 2<5
20. 나는 일상생활을 혼자 불편 없이 할 수 있다	4.00 (.841)	4.03 (.838)	4.01 (.760)	4.02 (.754)	3.86 (.862)	2.302	

문항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F	Scheffe
21. 나는 인적이 뜸한 시간(장소)에 돌아다니는 것이 두렵다	2.85 (1.235)	3.01 (1.093)	2.93 (1.066)	2.89 (1.055)	2.89 (1.031)	1.342	
22. 나는 범죄의 피해자가 될까봐 불안하다	2.77 (1.208)	2.84 (1.028)	2.68 (.986)	2.64 (1.042)	2.74 (1.008)	2.382	
23. 나 또는 주변사람이 성범죄(희롱, 추행, 폭력 등) 피해를 경험한 적 있다	1.97 (1.063)	2.02 (1.043)	2.01 (.950)	1.88 (.948)	1.81 (.873)	2.691 *	
24. 나는 위험(재해, 범죄 등)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3.10 (.892)	2.97 (.911)	3.07 (.876)	2.98 (.925)	3.00 (.881)	1.602	
25. 나는 살고 있는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해 불안하다	2.58 (.856)	2.77 (.872)	2.81 (.846)	2.80 (.866)	2.79 (.830)	4.643 **	1<3,4,5
26. 나는 하루에 보통 __ 시간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등)을 돌본다	.53 (1.732)	1.83 (2.151)	1.52 (1.785)	.72 (1.224)	.76 (1.424)	44.938 ***	1,4,5<2,3
27. 나는 하루에 보통 __ 시간 집안일을 한다	.71 (.966)	1.81 (1.514)	1.97 (1.493)	1.78 (1.447)	2.03 (1.476)	54.963 ***	1<2,3,4,5
28. 나는 현재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3.96 (.765)	3.94 (.669)	3.91 (.706)	3.83 (.744)	3.86 (.725)	2.134	
29. 나는 가족들과 대화 및 교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3.50 (.830)	3.54 (.745)	3.50 (.686)	3.41 (.747)	3.51 (.771)	1.733	
30. 나는 여가 및 문화 향유를 하고 있다(문화행사, 공연, 강좌 등.	3.45 (.791)	3.21 (.853)	3.10 (.843)	2.98 (.892)	2.94 (.984)	20.126 ***	4,5<2 2,3<1
31. 나는 필요한 공공 정보(복지서비스 정보 등)를 잘 알고 있다	3.19 (.871)	3.21 (.860)	3.12 (.802)	3.08 (.828)	2.97 (.855)	3.957 **	5<1,2
32. 나는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3.77 (.770)	3.67 (.749)	3.50 (.726)	3.32 (.844)	3.04 (.930)	42.136 ***	5<4<2,3 3<1
33. 나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남성을 먼저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83 (1.031)	2.89 (.889)	2.95 (.890)	3.12 (.944)	3.28 (.906)	12.240 ***	1,2<4 3<5
34. 나는 조직의 책임자나 리더는 남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66	2.68	2.73	2.93	3.15	15.055 ***	1,2<4

문항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F	Scheffe
생각한다	(1.018)	.948)	(.885)	(.945)	(.939)		3<5
35. 나는 맞벌이라도 가사와 양육의 주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2.45 (1.100)	2.47 (.946)	2.53 (.931)	2.72 (.976)	2.79 (.929)	8.446 ****	1,2<4 3<5
36. 나는 현재 남녀 간 지위차이는 능력과 노력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2.96 (1.027)	3.00 (.906)	2.97 (.925)	3.18 (.825)	3.38 (.818)	12.080 ****	1<4 2,3<5
37. 내 삶은 안정적이다	3.36 (.752)	3.42 (.727)	3.40 (.716)	3.39 (.732)	3.40 (.703)	.469	
38.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3.45 (.796)	3.49 (.682)	3.49 (.693)	3.48 (.728)	3.49 (.732)	.236	
39. 나는 행복하다	3.60 (.756)	3.61 (.646)	3.61 (.651)	3.54 (.685)	3.52 (.703)	1.319	

〈표 2-3〉 월평균 가구 소득별 차이

문항	(1) 100만원 미만	(2) 100 ~200만원 미만	(3) 200 ~300만원 미만	(4) 300 ~400만원 미만	(5) 400 ~500만원 미만	(6) 500만원 이상	F	Scheffe
1. 내 일자리는 안정적이다	2.68 (1.065)	3.07 (1.068)	3.41 (.910)	3.42 (.900)	3.53 (.855)	3.71 (.812)	19.321 ****	1<2<3,4,5,6
2. 나는 내 수입에 만족한다	2.43 (1.118)	2.68 (.928)	2.98 (.856)	3.07 (.914)	3.25 (.799)	3.39 (.841)	24.976 ****	1<3 2<4,5 3<6
3. 나는 현재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한다	3.45 (.746)	3.32 (.896)	3.44 (.814)	3.55 (.807)	3.65 (.694)	3.74 (.705)	9.451 ****	2<5 3<6
4. 나는 최근 이직을 고려해본 적이 있다	2.81 (1.116)	2.98 (1.081)	2.63 (1.088)	2.61 (1.079)	2.51 (1.028)	2.43 (1.088)	7.457 ****	5,6<2

문항	(1) 100만원 미만	(2) 100 ~200만원 미만	(3) 200 ~300만원 미만	(4) 300 ~400만원 미만	(5) 400 ~500만원 미만	(6) 500만원 이상	F	Scheffe
5. 나는 직장, 모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내 의견은 잘 반영되고 있다	3.27 (.984)	3.28 (.826)	3.41 (.781)	3.47 (.747)	3.49 (.671)	3.58 (.712)	6.132 ***	1,2<6
6. 내가 노력하면 현재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다	2.43 (1.193)	2.58 (1.020)	2.95 (1.022)	2.99 (1.003)	3.12 (.953)	3.15 (.962)	12.959 ***	1<3 2<4,5,6
7. 나는 국가 및 지역,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투표에 참여한다	3.97 (1.025)	3.91 (.861)	3.84 (.903)	3.78 (.941)	3.79 (.771)	3.98 (.763)	3.381 **	
8. 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모임(종교, 동호회, 자원봉사 등)에 참여한다	2.85 (1.329)	2.84 (1.132)	3.03 (1.102)	3.18 (1.018)	3.20 (.999)	3.07 (1.060)	5.508 ***	2<4 1<5
9. 나는 더 배우고 싶다(고등교육기관 진학, 학위취득, 평생교육 등)	3.32 (1.150)	3.36 (1.088)	3.19 (1.058)	3.24 (1.016)	3.17 (.942)	3.29 (1.051)	1.648	
10. 나는 원하는 만큼 교육을 받았다(초, 중, 고, 대학교)	2.97 (1.037)	3.20 (.979)	3.19 (1.018)	3.31 (.886)	3.27 (.853)	3.44 (.812)	5.014 ***	1<4,5,6
11. 내가 원하는 직업훈련(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건이 된다	2.82 (.946)	2.90 (.980)	2.93 (.984)	3.04 (.949)	3.09 (.892)	3.05 (.989)	2.789 *	
12. 나는 최근 참여한 교육프로그램(직무관련, 자기개발 등)에 만족한다	2.81 (.831)	2.96 (.801)	2.98 (.808)	3.07 (.814)	3.19 (.781)	3.10 (.824)	5.851 ***	1<4,5,6
13. 나는 사고나 질병 혹은 경제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2.90 (1.008)	3.09 (.880)	3.30 (.806)	3.42 (.799)	3.48 (.742)	3.43 (.847)	13.910 ***	1<3 2<4,5,6
14. 나는 외롭거나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와 친척, 이웃 등이 있다	3.67 (.996)	3.70 (.767)	3.78 (.718)	3.80 (.658)	3.77 (.682)	3.77 (.733)	.925	
15. 나는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에 자주 참여한다	2.41 (1.126)	2.26 (.943)	2.31 (.937)	2.39 (.960)	2.28 (.870)	2.30 (.905)	1.115	
16. 나는 동네일이나 지역사회(대전시) 일에 관심이 많다	2.84 (1.104)	2.88 (.928)	2.73 (.959)	2.75 (.913)	2.64 (.938)	2.65 (.956)	2.821 *	
17. 나는 자주 우울하다	2.52	2.49	2.28	2.08	1.98	1.90	22.857 ***	5,6<3

문항	(1) 100만원 미만	(2) 100 ~200만원 미만	(3) 200 ~300만원 미만	(4) 300 ~400만원 미만	(5) 400 ~500만원 미만	(6) 500만원 이상	F	Scheffe
18. 나는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동이나 검진을 받고 있다	(1.036 (.854)	(.929) (.783)	3.02 (1.148)	2.94 (1.102)	2.94 (1.082)	2.87 (1.143)	1.041	
19. 나는 건강 유지를 위해 일정 비용을 지출한다 (유기농, 건강 식품, 운동 등)	3.04 (1.018)	3.17 (.957)	3.16 (.947)	3.24 (.904)	3.16 (.897)	3.17 (.953)	.851	4<1,2
20. 나는 일상생활을 혼자 불편 없이 할 수 있다	2.85 (.977)	3.08 (.936)	3.13 (.870)	3.18 (.817)	3.23 (.805)	3.28 (.849)	4.359**	1<3,4,5,6
21. 나는 인적이 뜸한 시간(장소)에 돌아다니는 것이 두렵다	3.77 (.816)	3.90 (.834)	4.00 (.851)	4.04 (.811)	4.01 (.786)	4.05 (.735)	2.600*	1<4,6
22. 나는 범죄의 피해자가 될까봐 불안하다	2.89 (1.121)	3.02 (1.148)	2.84 (1.037)	2.94 (1.102)	2.94 (1.082)	2.87 (1.143)	1.041	
23. 나 또는 주변사람이 성범죄(희롱, 추행, 폭력 등) 피해를 경험한 적 있다	2.65 (1.075)	2.83 (1.099)	2.72 (1.017)	2.69 (1.062)	2.76 (1.052)	2.70 (1.057)	.880	
24. 나는 위험(재해, 범죄 등)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1.99 (1.033)	2.15 (1.063)	1.90 (.975)	1.85 (.904)	2.04 (1.006)	1.83 (.964)	5.148***	6<2
25. 나는 살고 있는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해 불안하다	3.09 (.737)	3.03 (.869)	2.91 (.917)	3.04 (.980)	3.05 (.875)	3.08 (.851)	1.594	
26. 나는 하루에 보통 _시간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등)을 돌본다	2.61 (.897)	2.75 (.906)	2.73 (.906)	2.75 (.861)	2.83 (.784)	2.70 (.861)	1.529	
27. 나는 하루에 보통 _시간 집안일을 한다	1.051 (1.921)	1.230 (1.933)	1.253 (2.155)	1.305 (1.800)	1.020 (1.576)	.891 (1.431)	2.976*	
28. 나는 현재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1.861 (1.437)	1.792 (1.394)	1.769 (1.407)	1.804 (1.537)	1.682 (1.581)	1.196 (1.287)	8.786***	6<1,2,3,4,5
29. 나는 가족들과 대화 및 교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3.74 (.890)	3.76 (.899)	3.87 (.743)	3.97 (.712)	3.93 (.628)	3.96 (.612)	4.645***	1<6,4
	3.27 (.792)	3.26 (.806)	3.46 (.766)	3.60 (.736)	3.55 (.687)	3.53 (.748)	9.274***	1,2<4,5,6

문항	(1) 100만원 미만	(2) 100 ~200만원 미만	(3) 200 ~300만원 미만	(4) 300 ~400만원 미만	(5) 400 ~500만원 미만	(6) 500만원 이상	F	Scheffe
30. 나는 여가 및 문화 향유를 하고 있다(문화행사, 공연, 강좌 등.	2.85 (.988)	2.98 (.952)	3.02 (.961)	3.14 (.811)	3.26 (.805)	3.31 (.853)	9.345 ***	1<4 2<5 3<6
31. 나는 필요한 공공 정보(복지서비스 정보 등)를 잘 알고 있다	2.75 (.824)	2.93 (.915)	3.02 (.848)	3.17 (.826)	3.24 (.785)	3.26 (.823)	11.378 ***	1<3,4 2<5,6
32. 나는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3.25 (1.019)	3.29 (.900)	3.37 (.867)	3.50 (.772)	3.61 (.740)	3.66 (.791)	11.361 ***	1,2<5 3<6
33. 나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남성을 먼저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81 (1.063)	2.77 (.989)	3.06 (.963)	3.06 (.904)	3.11 (.896)	2.88 (.924)	6.965 ***	2<4 1<5
34. 나는 조직의 책임자나 리더는 남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68 (1.057)	2.56 (1.004)	2.87 (.944)	2.86 (.903)	2.89 (.937)	2.74 (.980)	5.534 ***	2<3,4,5
35. 나는 맛벌이라도 가사와 양육의 주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2.54 (1.010)	2.41 (.953)	2.67 (.967)	2.64 (.981)	2.65 (.969)	2.42 (1.018)	4.951 ***	
36. 나는 현재 남녀 간 지위차이는 능력과 노력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3.22 (.996)	2.97 (1.015)	3.18 (.947)	3.11 (.888)	3.06 (.838)	2.95 (.920)	3.549 **	
37. 내 삶은 안정적이다	2.77 (.784)	3.07 (.811)	3.34 (.699)	3.45 (.694)	3.51 (.650)	3.61 (.656)	34.275 ***	1<2<3,4,5 3<6
38.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3.01 (.824)	3.22 (.809)	3.41 (.734)	3.55 (.694)	3.60 (.643)	3.61 (.660)	20.126 ***	1<3 2<4,5,6
39. 나는 행복하다	3.32 (.870)	3.35 (.842)	3.52 (.692)	3.62 (.648)	3.69 (.574)	3.68 (.624)	13.726 ***	1,2<4,5,6

〈표 2-4〉 경제활동 상태별 차이

문항	(1) 정규 상근	(2) 비정규 상근	(3) 부정기 파트타임	(4) 일하지 않음	F	Scheffe
1. 내 일자리는 안정적이다	3.65 (.805)	2.76 (.955)	2.57 (.921)		177.281 ***	2,3<1
2. 나는 내 수입에 만족한다	3.21 (.877)	2.69 (.839)	2.66 (.980)		50.558 ***	2,3<1
3. 나는 현재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한다	3.63 (.751)	3.30 (.843)	3.36 (.837)		23.030 ***	2,3<1
4. 나는 최근 이직을 고려해본 적이 있다	2.55 (1.075)	2.75 (1.104)	2.96 (.999)		8.909 ***	1<3
5. 나는 직장, 모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내 의견은 잘 반영되고 있다	3.49 (.734)	3.20 (.803)	3.28 (.848)	3.53 (.730)	14.482 ***	2,3<1,4
6. 내가 노력하면 현재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다	3.15 (.953)	2.42 (1.016)	2.31 (.891)		88.803 ***	2,3<1
7. 나는 국가 및 지역,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투표에 참여한다	3.88 (.812)	3.75 (.907)	3.70 (.876)	3.86 (.944)	2.711 *	
8. 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모임(종교, 동호회, 자원봉사 등)에 참여한다	3.11 (1.049)	3.01 (1.090)	2.89 (1.120)	3.09 (1.106)	1.687	
9. 나는 더 배우고 싶다(고등교육기관 진학, 학위취득, 평생교육 등)	3.26 (1.018)	3.26 (1.044)	3.04 (1.021)	3.22 (1.045)	1.369	
10. 나는 원하는 만큼 교육을 받았다(초, 중, 고, 대학교)	3.37 (.875)	3.07 (.957)	3.00 (.856)	3.18 (.970)	13.703 ***	2,3<1
11. 내가 원하는 직업훈련(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건이 된다	3.01 (.965)	2.87 (.974)	2.91 (.970)	3.10 (.902)	3.564 *	
12. 나는 최근 참여한 교육프로그램(직무관련, 자기개발 등)에 만족한다	3.12 (.835)	2.86 (.882)	2.89 (.820)	3.08 (.654)	9.466 ***	2<4 3<1

문항	(1) 정규 상근	(2) 비정규 상근	(3) 부정기 파트타임	(4) 일하지 않음	F	Scheffe
13. 나는 사고나 질병 혹은 경제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3.44 (.783)	3.11 (.840)	3.34 (.805)	3.25 (.901)	15.151 ***	2<1.3
14. 나는 외롭거나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와 친척, 이웃 등이 있다	3.79 (.684)	3.64 (.755)	3.80 (.734)	3.77 (.774)	3.495 *	
15. 나는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에 자주 참여한다	2.29 (.885)	2.38 (.971)	2.24 (.911)	2.36 (1.019)	1.404	
16. 나는 동네일이거나 지역사회(대전시) 일에 관심이 많다	2.70 (.927)	2.89 (.921)	2.49 (.947)	2.72 (1.003)	5.030 **	3<2
17. 나는 자주 우울하다	2.10 (.850)	2.29 (.963)	2.21 (.920)	2.11 (.896)	3.895 **	
18. 나는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동이나 검진을 받고 있다	3.22 (.881)	3.15 (.973)	3.00 (.978)	3.12 (1.014)	2.463	
19. 나는 건강 유지를 위해 일정 비용을 지출한다 (유기농, 건강식품, 운동 등)	3.22 (.831)	3.07 (.839)	3.07 (.884)	3.13 (.920)	3.365 *	
20. 나는 일상생활을 혼자 불편 없이 할 수 있다	4.03 (.769)	3.82 (.835)	3.93 (.646)	4.02 (.895)	5.656 **	2<1
21. 나는 인적이 뜸한 시간(장소)에 돌아다니는 것이 두렵다	2.91 (1.098)	2.82 (1.063)	3.07 (1.083)	2.98 (1.124)	1.832	
22. 나는 범죄의 피해자가 될까봐 불안하다	2.71 (1.046)	2.68 (1.016)	2.89 (1.100)	2.79 (1.095)	1.583	
23. 나 또는 주변사람이 성범죄(희롱, 추행, 폭력 등) 피해를 경험한 적 있다	1.95 (.973)	2.08 (1.053)	2.02 (1.054)	1.86 (.951)	2.927 *	
24. 나는 위험(재해, 범죄 등)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3.03 (.891)	3.07 (.823)	3.07 (.814)	2.97 (.977)	.903	
25. 나는 살고 있는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해 불안하다	2.74 (.859)	2.84 (.883)	2.68 (.828)	2.75 (.851)	1.117	

문항	(1) 정규 상근	(2) 비정규 상근	(3) 부정기 파트타임	(4) 일하지 않음	F	Scheffe
26. 나는 하루에 보통 __시간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등)을 돌본다	1.00 (1.434)	1.13 (1.719)	1.16 (1.735)	1.50 (2.523)	8.483 ***	1<4
27. 나는 하루에 보통 __시간 집안일을 한다	1.40 (1.287)	1.88 (1.485)	2.00 (1.416)	2.18 (1.766)	35.819 ***	1<2,3,4
28. 나는 현재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3.93 (.686)	3.71 (.825)	3.93 (.796)	3.94 (.709)	7.951 ***	2<1,3,4
29. 나는 가족들과 대화 및 교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3.50 (.741)	3.25 (.771)	3.47 (.754)	3.62 (.734)	14.208 ***	2<1,3,4
30. 나는 여가 및 문화 향유를 하고 있다(문화행사, 공연, 강좌 등).	3.16 (.865)	3.00 (.923)	3.10 (.932)	3.20 (.883)	3.220 *	
31. 나는 필요한 공공 정보(복지서비스 정보 등)를 잘 알고 있다	3.16 (.840)	2.96 (.805)	3.00 (.843)	3.15 (.861)	5.075 **	
32. 나는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3.55 (.787)	3.29 (.823)	3.41 (.882)	3.49 (.893)	7.327 ***	2<1
33. 나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남성을 먼저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02 (.941)	2.88 (.966)	2.84 (.946)	3.02 (.922)	2.559	
34. 나는 조직의 책임자나 리더는 남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83 (.966)	2.70 (.947)	2.67 (.955)	2.83 (.936)	2.021	
35. 나는 맞벌이라도 가사와 양육의 주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2.58 (.988)	2.56 (.980)	2.48 (.959)	2.61 (.983)	.457	
36. 나는 현재 남녀 간 지위차이는 능력과 노력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3.05 (.912)	3.12 (.901)	2.92 (.859)	3.14 (.950)	2.174	
37. 내 삶은 안정적이다	3.47 (.661)	3.06 (.809)	3.13 (.792)	3.45 (.758)	30.570 ***	2,3<1,4
38.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3.54 (.679)	3.27 (.807)	3.36 (.738)	3.49 (.750)	11.542 ***	2<1,4

문항	(1) 정규 상근	(2) 비정규 상근	(3) 부정기 파트타임	(4) 일하지 않음	F	Scheffe
39. 나는 행복하다	3.63 (.652)	3.38 (.773)	3.56 (.703)	3.59 (.688)	9.908 ***	2<1,3,4

연구보고서 2016-06

대전시 성평등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II
- 인지지표의 활용과 측정

발행인 유 재 일

발행일 2016년 11월 30일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선화동)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 : 갓 피플

TEL : 042-223-002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선화동 287-2)
TEL. 042-530-3500 FAX. 042-530-3508
www.dsi.re.kr



ISBN : 979-11-6075-003-4 93330